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강민주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 글로벌경영학과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Angelo State University
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보고서 제출일	2025년 01월 22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1)날씨

텍사스 중부에 위치한 만큼 날씨가 전반적으로 쾌적하다. 1년 내내 비교적 온화하며, 여름에는 덥지만 겨울에도 큰 추위가 없어 12월까지 따뜻한 편이라는 점이 이 도시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추운 날씨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텍사스에 위치한 ASU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실제로 12월에도 낮에는 반팔을 입고 다닐 만큼 따뜻하고, 밤에는 선선해 가벼운 겉옷을 걸치기 좋다.

2)학교생활

Regular Korean Student를 포함해 한국인 학생은 약 60명 정도였다. 한인교회, 오리엔테이션 등 한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인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최소화하고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를 최대화하고자 노력한 결과, 홈파티 참여, 서부 로드트립, 미국식 홀리데이 패밀리 문화 체험, 로데오 관람, 카우보이 생활 경험 등 텍사스 문화를 보다 밀도 있게 경험하고 즐길 수 있었다. 한국인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며 생활할지는 개인의 가치관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도심과 다소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루하게 느끼는 학생들도 많다. 따라서 도시적인 환경보다는 자연을 선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에게 더 적합한 학교이며, 어떤 친구들을 사귀냐에 따라 학교 내에서도 그 이상으로 더 재미있게 놀고 즐길 수 있는 것 같다. 학교 주변에는 즐길 거리가 많지 않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무료 트램을 이용하면 다운타운을 비롯해 Walmart, HEB, 영화관, 쇼핑몰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다만 트램의 운영 요일과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차량을 보유한 현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이동 면에서 훨씬 편리하고 일상 또한 더 재미있게 느껴졌다.

3)공부

Business 수업을 주로 들은 나는 수업의 양과 질에 아쉬움을 느꼈다. Senior수업이었지만 한국에서의 1, 2학년 수업의 수준 정도였으며, 팀플의 비중이 높은 과 특성상 한국 학생만큼의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토론 위주의 수업에서는 미국 대학 특성상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울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토론 외의 수업에서는 높은 수준의 지식 습득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과인 친구들을 살펴보면 간호학과, 컴퓨터학과의 학생들의 공부량은 방대하였습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방식을 과 특성에 따라 잘 살펴보고 학교 선택 및 수강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같은 관심사를 가진 현지 친구들 및 학교 밖과의 교류를 늘리고 싶어 면접을 통하여 DSP라는 Professional Business 학회에 입부하였습니다. DSP는 미국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학회 중 하나이며, 타 학교들과의 교류 및 현지 기업들과의 교류도 왕성한 학회입니다. 저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학회 활동 및 현지 친구들 사귀기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 내 활동들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Business 수업을 수강한 나는 수업의 양과 질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을 느꼈다. Senior 과정의 수업이었지만, 전반적인 수준은 한국 대학의 1, 2학년 과정과 비슷하다고 느껴졌으며, 팀 프로젝트 비중이 높은 학과 특성상 학업 수준에 있어서 한국 학생들만큼의 깊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토론 중심의 수업에서는 미국 대학 특유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스스럼없이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그러나 토론 외의 수업 방식에서는 높은 수준의 지식 습득을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이과 계열 전공인 친구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간호학과나 컴퓨터학과 학생들의 학업량은 상당히 방대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본인이 추구하는 학습 방식과 목표를 전공 특성에 맞추어 충분히 고려한 후 학교 선택과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나는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면접을 거쳐 DSP라는 Professional Business 학회에 입부하였다. DSP는 미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비즈니스 학회 중 하나로, 타 대학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들과의 네트워킹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학회이다. 나는 공부에만 국한되기보다는 학회 활동과 현지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다양한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하였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강민산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18, 그린화학공학과
파견시기	2025 학년도 동계방학 |2학기|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Catholic university of Lyon (UCLY)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6 년 1 월 25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기숙사 (MDE, maison des étudiants saint Bernard)

1) 시설 - 이 기숙사는 학교에서 연계해 준 기숙사로, 한국에서 보증금을 선납한 후 등록을 진행하였다. 학기 시작일 당일에도 입주를 할 수 있지만 먼저 연락하여 빈 방이 있을 경우 학기 시작 이전에도 입주가 가능하다. 나의 경우 학기 시작 7일 전에 입주하였으며, 하루당 40유로를 추가로 지불하였다. 기숙사에 입주한 한국 국적 학생들은 주로 4층에 배정되었으나, 나는 1층에 배정되었다. 각 층마다 공용 주방이 2개 있고 1층에는 한국인이 거의 없었기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어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았다. 또한 주방에서 인덕션을 이용해 요리를 할 수 있으며,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0층에는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룸 5개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복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휴식공간이 있다. 지하 1층에는 오븐이 있는 더욱 커다란 공용 주방과 탁구실, 체육관, 세탁실이 위치해 있다. 방 내부에는 방안의 수납공간이 비교적 넉넉하고, 옷장과 신발장,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어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은 없었다. 다만 냉동실이 없는 냉장고이기 때문에 냉동식품 보관은 어렵다. 따라서 식재료를 한 번에 많이 구매하기보다는 학교 근처 마트를 이용해 자주 소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입주 전에는 화장실이 공용이라는 정보를 보고 걱정했으나, 실제로는 각 방마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비교적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샤워 공간이 다소 좁고, 화장실 문 하단으로 물이 약간 새어 나올 수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기숙사라고 생각한다.
2) 위치 - 이 기숙사의 가장 큰 장점은 위치라고 생각한다.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도보로 약 10~15분 정도 소요되며, 리옹에서 TGV를 이용할 수 있는 Lyon Perrache 역까지도 약 20분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짧은 휴가 기간 동안 다른 도시나 국가로 여행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또한 리옹의 구시가지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어 수업이 끝난 후 산책을 하기에 좋다.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리옹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고 리옹 성 조지 성당과 푸비에르 대성당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

1) 수업 - 인터넷으로 학교 등록을 완료하면 이메일을 통해 레벨 테스트(독해, 듣기, 작문)를 진행하게 되며, 학기 시작 전에는 직접 구술 평가를 치른다. 해당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A1부터 C1까지 반이 배정된다. 나의 경우에는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해 학기 시작 전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레벨 테스트를 치를 수 있었다. 학교 사무실 직원과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친절한 편이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무실에 문의하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수업은 오전반(8시~12시)과 오후반(13시~17시)으로 나뉘어 있으며, 중간에 2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내가 수강한 반의 경우 총 3명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으며, 일부 학생들이 수업 중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있었으나 수업에 큰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해당 학생들과 직접 대화

를 나누어 보면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의 학생들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나는 Intensif 수업도 함께 수강하였는데, 이를 통해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말하기와 듣기 영역을 보다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특히 만족스러웠다. 정규 수업만으로는 말하기와 듣기 연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Intensif 수업이 이를 보완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수업 마지막에는 함께 디저트를 나누어 먹는 시간도 있었고, 리옹에 위치한 스타트업 회사를 방문해 회사 소개를 듣는 프로그램, 폴 보퀴즈 시장을 방문하는 야외 수업 등도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리옹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휴가가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총 4개월의 수업 기간 동안 약 3회의 휴가가 있었으며, 휴가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7일 정도였다. 이 기간 동안 여러 도시와 국가를 여행할 수 있었던 점은 분명 장점이었지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꾸 끊기는 느낌이 들었던 것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

2) 학교 프로그램 - 리옹 가톨릭 대학교의 경우 본 대학과 어학원이 분리되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부터 리옹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활동, 프랑스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된다. 그 중 나는 체육 동아리와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체육 동아리로는 탁구부를 선택하였으며 기숙사에서 만난 한국 학생과 같이 참여하였다. 탁구부 활동은 본 대학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공과 국적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해당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탁구를 접하게 되었는데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만약에 혼자 참여하게 된다면 살짝 아쉬울 수 있기에 같이 운동할 친구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언어 교환 프로그램은 수업 시간에 안내를 받아 참여하게 되었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프랑스 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 이를 통해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또한 버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였으나 내가 정보를 잘못 입력한 탓인지 연락이 오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여 아쉬웠다.

어학연수 참여후기
처음 교환학생을 신청했을 때는 해외에서 여행을 하기보다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현지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해 보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하였다. 프랑스에 오기 전에는 프랑스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걱정이 많았지만, 리옹에 도착한 후 이 도시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직접 느끼며 프랑스가 모두 차갑게 느껴지는 나라만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프랑스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번 어학연수는 단순히 언어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나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프랑스라는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며 여러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에서 생활할 때 고치고 싶다고 생각했던 나의 여러 부족한 점들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었다. 더불어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평소 알고 있던 프랑스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는 점도 큰 의미로 남았다. 특히 리옹의 빛 축제와 크리스마스 마켓 등 다양한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 열린 Bal d'UCLY 파티에 직접 참여하면서 여행으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현지 대학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리옹이라는 도시를 더욱 특별하게 기억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리옹은 단순히 공부를 했던 장소가 아니라, 앞으로도 오래 기억에 남을 소중한 장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성장은 앞으로의 삶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 믿는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박재혁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학번 문화예술경영전공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어학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Lyon Catholic University (LCU)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6년 2월 4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2025년도 2학기 어학교환학생으로 리옹가톨릭대학교의 부설 어학원인 ILCF 다녀왔습니다. 먼저 준비과정에서 가장 신경서야 할 부분은 비자준비입니다. 프랑스는 일반적인 비자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캠퍼스프랑스라는 프랑스 정부산하의 교육기관의 면접을 또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 준비과정에서 서류준비의 경우 인터넷에 사람들이 적어놓은 내용들을 참고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수시로 서류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좋고 비자 수령기간이 출국일정과 겹치지 않기 위해 비자 준비는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캠퍼스프랑스 면접의 경우 면접관님과 본인의 프랑스어 실력 및 경력에 따라 프랑스어를 사용할 때도 있고 영어나 한국어를 사용때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심사 및 판단의 자리가 아닌 어학목적 및 동기 열정 등을 확인하는 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프랑스어를 독학한지 1개월정도 된 상태에서 면접을 보았고 한국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학원을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프랑스어 수업을 듣게 됩니다. 가기전에 이메일로 레벨테스트를 진행하며 개강하기전에 말하기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 같은 경우는 학기 초반에 선생님께 말씀하여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업은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고 오전반은 8시부터 12시 오후반은 13시부터 17시까지 수업을 받게 됩니다. 수업은 주 4일 월, 화, 목, 금 수업이며 Intensif를 하게되면 수요일 수업이 추가됩니다. 또한 학기 중간 10월달에 일주일정도 방학이 있고 12월에 방학이 2주가량 있는데 이 기간을 활용해서 다른 유럽국가를 여행하거나 프랑스 다른 지역 여행을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만 25세 이하라면 TGV max라고 있는데 한국의 KTX를 매달 10만원 정도 내고 0원표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79유로이고 3개월은 꼭 써야 하지만 한달에 파리 2번 왕복만해도 이득이기 때문에 파리를 자주 갈 생각이 있거나 프랑스 내 다른 도시들을 여행할 생각이 있다면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파리는 표 구하기도 쉽고 2시간이면 가기 때문에 저는 한달에 한번은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파리 외에도 큰 도시는 다 0표로 갈 수 있어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주말에 여행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충분한 고민 후에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Caf라고 주택보조금이 있는데 이번에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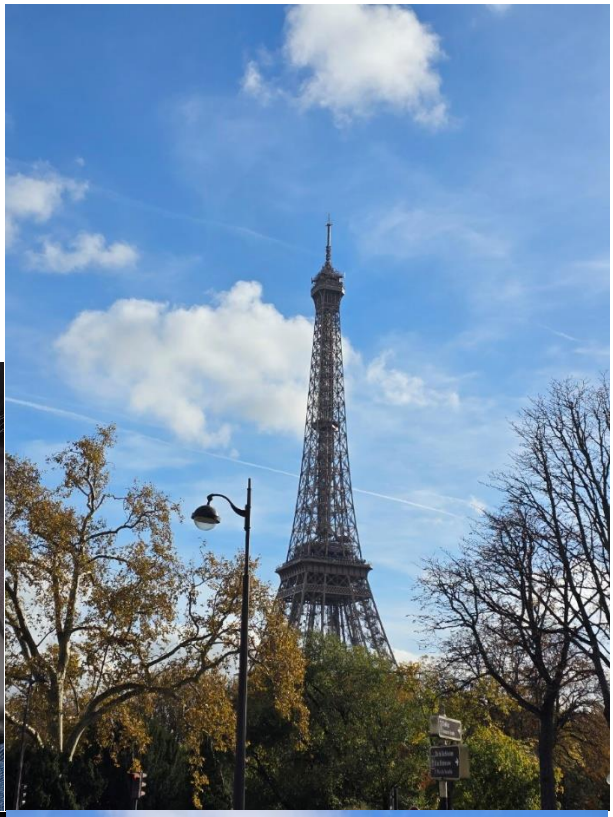
기숙사의 경우 Maison des Etudiants St Bernard에서 거주하였고 기숙사는 선택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명대학교 학생들은 거의 여기로 다 모이게 됩니다. 기숙사의 경우 화장실은 방에 있고 주방만 공유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식기류는 주지만 수저는 없기 때문에 챙겨와야 합니다. 또한 한인 마트가 있으나 걸어가기엔 애매한 위치에 있고 가격도 한국 물가 생각하면 비싸기 때문에 초반에 버틸 라면이나 한식들을 챙겨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는 학교까지 10분, 메트로와 트램을 탈 수 있는 Perrache역까지 10분거리에 있어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기숙사의 커피자판기가 저렴하고 맛도 괜찮은 편이어서 많이 이용하였고 0층에 기부박스가 있는데 자주 들여다보면 괜찮은 것들을 주울 수 있습니다. 저는 추위를 잘 안타는 편이어서 전기장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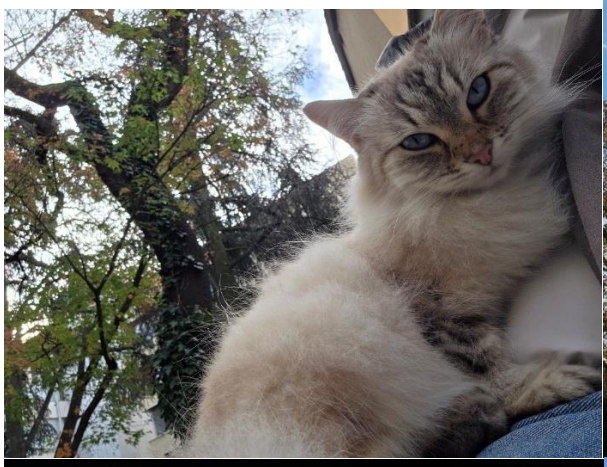
을 가져가 놓고 쓰지는 않았는데, 추위를 타는 편이면 전기장판 등 잘 준비하시는 편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프랑스 외식비용이 상당합니다. 맥도날드가 세트가 우리나라 1.5배정도 되고 식당을 가면 기본 20유로는 써야 합니다. 다행히 식재료 물가는 무난하기에 U express에 가셔서 장을 보시고 직접 해먹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대부분의 장은 학생할인 5%가 되는 U express에서 해결하시면 되고 큰 마트를 가야한다면 Confluence에 있는 Carrefour에 가시면 됩니다. 삼겹살이나 오겹살도 팔고 가격도 합리적이라서 자주 구워 먹었습니다. 라면은 한인 마트가 더 싸고 많습니다. 돈을 아껴야 한다면 바게트에 버터 발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숙사에 터줏대감 고양이가 있는데 애교가 많고 귀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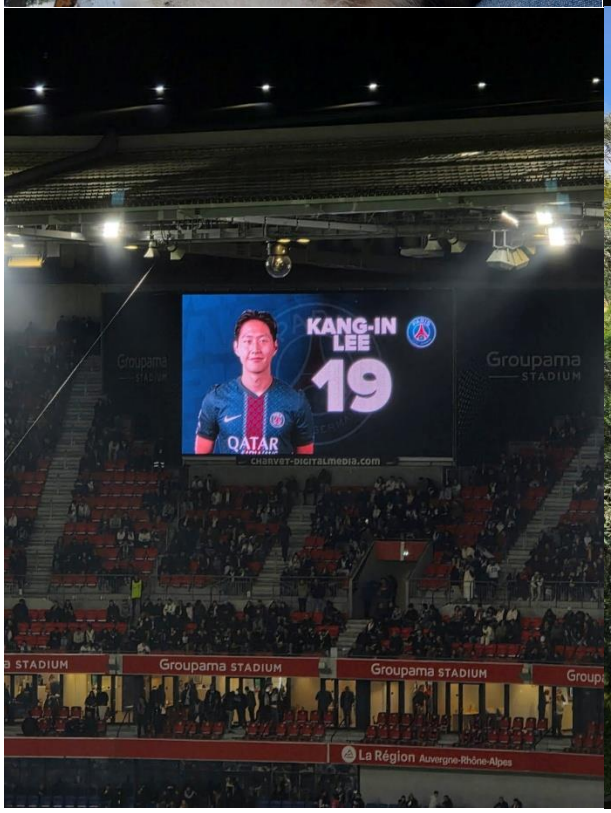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말하자면 준비하는 과정 및 적응하는 과정에서 너무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1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갔고 영어수준도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으나 외국에 생활하는데 있어서 언어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음을 몸소 느꼈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친구를 사귀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수업을 들었을 때는 수업이 프랑스어로 진행되다 보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들어서는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까지 실력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위축되지 않는 태도와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과 대화도 해보고 다양한 활동들과 여러 국가 및 도시들을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학교환의 목적은 각자 다 다르겠지만 값진 교환학생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KANG-IN
LEE
19
QATAR
Groupama STADIUM
Groupama STADIUM
Groupama STADIUM
La Région Auvergne-Rhône-Alpes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홍주희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학번 공간환경학부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6년 01월 26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내용

제가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UCM은 미국 중부의 Missouri주 Warrensburg에 위치해 있습니다.

- 장점

UCM은 오랜 기간 상명대에서 교환학생을 파견한 곳이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여러 절차의 처리나 가서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UCM에 있는 국제 학생회에서도 이전의 상명대 교환학생들과 교류했었고 여전히 친구인 경우도 많아서 한국 학생들에게 호의적이고 많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열립니다. 10월까지는 거의 매주 이벤트가 열렸던 것 같던데 참여하면 여러 사람들과 말할 기회도 생기고 이런 이벤트에서 소개받거나 자주 만나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동 시설이나 도서관, 극장 등의 시설들이 깔끔하고 잘 되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물들이 오래되지 않았고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시골이라 학교 주변이 조용해서 좋았습니다만 이것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개인 성향에 따라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단점

UCM은 중부에서 시골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차가 없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큰 도시인 Kansas city로 갈 때는 차가 있는 현지 친구들과 함께 가거나 한인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드려서 갈 수 있습니다만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하니 자유롭게 이동하기는 힘듭니다.

중부에 있어서 Fall break나 Thanks Giving처럼 긴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가도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갈 수 있지만 공항까지 이동하는게 어렵습니다. 미리 차가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우버를 이용해야 하는데 우버가 비싸기도 하고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 여러명이서 같이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시골이라 여행이 아닌 다른 도시로 짧게 다녀오기는 어려워서 도시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답답해 하거나 지루해 하기도 했습니다.

- 기타

기숙사는 꼭 최대한 빠르게 The Crossing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 방과 부엌이 있는 아파트 형식에 신식이라 시설은 가장 좋고 다른 후기나 블로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기숙사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벌레가 나오기도 하지만 물이 새거나 하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비용적으로도 따져보면 The Crossing이 가장 저렴하거나 거의 비슷해서 웬만하면 The Crossing을 신청하는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가장 인기가 많아서 빨리 마감되니 학번을 부여받고 바로 신청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업들은 전반적으로 확실히 더 자유롭고 편하게 말하는 분위기이고 보통 한국보다 소규모의 수업들로 진행됩니다. 저는 국제 학생이 많이 듣는 spoken/written as a second language 어학 수업 2개와 Scene Design, Cad 전공 수업 2개를 들었습니다.
어학 수업의 경우 국제학생이 듣는 수업이라 과제는 조금 있어도 수업이 확실히 쉽고 분위기도 자유롭습니다. 공부에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고 싶다면 가볍게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향상시키고 싶거나 현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차라리 전공 수업을 많이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학 수업은 국제학생들이라 확실히 쉬운 영어들로 소통하는 반면 전공 수업들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현지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영어나 전공에서 쓰이는 영어들도 들을 수 있어서 영어 향상에는 더 좋았습니다. 특히 1~2000번대 수업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저학년 친구들이 많아서 다가가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3~4000번대 수업도 조금 어렵긴 해도 교수님이나 다른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려 했기에 도전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Scene Design 수업이나 다른 연극,영상 쪽 수업들은 학교 극장이나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도 수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것들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일의 처리나 진행이 한국보다 느리고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처리해야할 일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 빨리 직접 찾아가는 것이 좋고 아니면 담당자님께 최대한 빨리 메일로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결될 때 까지 그냥 기다리지 말고 계속 메일로 물어보면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비용의 경우 몇학점을 듣는지, 기숙사가 어딘지, 밀 플랜을 몇 개 구매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1학기 정규 교환학생이었던 저는 비행기나 기타 비용 포함 대략적으로 총 1000만원 이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간 중간 여행을 다니고 싶다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드니 넉넉히 준비해 가는게 좋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 가서 전공관련 학교 job을 구해 돈을 벌기도 했지만 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보통은 어려워서 미리 준비하거나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걸 추천합니다.

인터넷에 UCM교환학생 후기를 치면 블로그에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찾아보세요!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강민주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 글로벌경영학과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Angelo State University
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보고서 제출일	2025년 01월 22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1)날씨

텍사스 중부에 위치한 만큼 날씨가 전반적으로 쾌적하다. 1년 내내 비교적 온화하며, 여름에는 덥지만 겨울에도 큰 추위가 없어 12월까지 따뜻한 편이라는 점이 이 도시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추운 날씨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텍사스에 위치한 ASU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실제로 12월에도 낮에는 반팔을 입고 다닐 만큼 따뜻하고, 밤에는 선선해 가벼운 겉옷을 걸치기 좋다.

2)학교생활

Regular Korean Student를 포함해 한국인 학생은 약 60명 정도였다. 한인교회, 오리엔테이션 등 한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인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최소화하고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를 최대화하고자 노력한 결과, 홈파티 참여, 서부 로드트립, 미국식 홀리데이 패밀리 문화 체험, 로데오 관람, 카우보이 생활 경험 등 텍사스 문화를 보다 밀도 있게 경험하고 즐길 수 있었다. 한국인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며 생활할지는 개인의 가치관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도심과 다소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루하게 느끼는 학생들도 많다. 따라서 도시적인 환경보다는 자연을 선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에게 더 적합한 학교이며, 어떤 친구들을 사귀냐에 따라 학교 내에서도 그 이상으로 더 재미있게 놀고 즐길 수 있는 것 같다. 학교 주변에는 즐길 거리가 많지 않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무료 트램을 이용하면 다운타운을 비롯해 Walmart, HEB, 영화관, 쇼핑몰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다만 트램의 운영 요일과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차량을 보유한 현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이동 면에서 훨씬 편리하고 일상 또한 더 재미있게 느껴졌다.

3)공부

Business 수업을 주로 들은 나는 수업의 양과 질에 아쉬움을 느꼈다. Senior수업이었지만 한국에서의 1, 2학년 수업의 수준 정도였으며, 팀플의 비중이 높은 과 특성상 한국 학생만큼의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토론 위주의 수업에서는 미국 대학 특성상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울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토론 외의 수업에서는 높은 수준의 지식 습득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과인 친구들을 살펴보면 간호학과, 컴퓨터학과의 학생들의 공부량은 방대하였습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방식을 과 특성에 따라 잘 살펴보고 학교 선택 및 수강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같은 관심사를 가진 현지 친구들 및 학교 밖과의 교류를 늘리고 싶어 면접을 통하여 DSP라는 Professional Business 학회에 입부하였습니다. DSP는 미국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학회 중 하나이며, 타 학교들과의 교류 및 현지 기업들과의 교류도 왕성한 학회입니다. 저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학회 활동 및 현지 친구들 사귀기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 내 활동들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Business 수업을 수강한 나는 수업의 양과 질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을 느꼈다. Senior 과정의 수업이었지만, 전반적인 수준은 한국 대학의 1, 2학년 과정과 비슷하다고 느껴졌으며, 팀 프로젝트 비중이 높은 학과 특성상 학업 수준에 있어서 한국 학생들만큼의 깊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토론 중심의 수업에서는 미국 대학 특유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스스럼없이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그러나 토론 외의 수업 방식에서는 높은 수준의 지식 습득을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이과 계열 전공인 친구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간호학과나 컴퓨터학과 학생들의 학업량은 상당히 방대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본인이 추구하는 학습 방식과 목표를 전공 특성에 맞추어 충분히 고려한 후 학교 선택과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나는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면접을 거쳐 DSP라는 Professional Business 학회에 입부하였다. DSP는 미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비즈니스 학회 중 하나로, 타 대학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들과의 네트워킹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학회이다. 나는 공부에만 국한되기보다는 학회 활동과 현지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다양한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하였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강민산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18, 그린화학공학과
파견시기	2025 학년도 동계방학 |2학기|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Catholic university of Lyon (UCLY)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6 년 1 월 25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기숙사 (MDE, maison des étudiants saint Bernard)

1) 시설 - 이 기숙사는 학교에서 연계해 준 기숙사로, 한국에서 보증금을 선납한 후 등록을 진행하였다. 학기 시작일 당일에도 입주를 할 수 있지만 먼저 연락하여 빈 방이 있을 경우 학기 시작 이전에도 입주가 가능하다. 나의 경우 학기 시작 7일 전에 입주하였으며, 하루당 40유로를 추가로 지불하였다. 기숙사에 입주한 한국 국적 학생들은 주로 4층에 배정되었으나, 나는 1층에 배정되었다. 각 층마다 공용 주방이 2개 있고 1층에는 한국인이 거의 없었기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어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았다. 또한 주방에서 인덕션을 이용해 요리를 할 수 있으며,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0층에는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룸 5개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복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휴식공간이 있다. 지하 1층에는 오븐이 있는 더욱 커다란 공용 주방과 탁구실, 체육관, 세탁실이 위치해 있다. 방 내부에는 방안의 수납공간이 비교적 넉넉하고, 옷장과 신발장,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어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은 없었다. 다만 냉동실이 없는 냉장고이기 때문에 냉동식품 보관은 어렵다. 따라서 식재료를 한 번에 많이 구매하기보다는 학교 근처 마트를 이용해 자주 소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입주 전에는 화장실이 공용이라는 정보를 보고 걱정했으나, 실제로는 각 방마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비교적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샤워 공간이 다소 좁고, 화장실 문 하단으로 물이 약간 새어 나올 수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기숙사라고 생각한다.
2) 위치 - 이 기숙사의 가장 큰 장점은 위치라고 생각한다.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도보로 약 10~15분 정도 소요되며, 리옹에서 TGV를 이용할 수 있는 Lyon Perrache 역까지도 약 20분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짧은 휴가 기간 동안 다른 도시나 국가로 여행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또한 리옹의 구시가지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어 수업이 끝난 후 산책을 하기에 좋다.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리옹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고 리옹 성 조지 성당과 푸비에르 대성당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

1) 수업 - 인터넷으로 학교 등록을 완료하면 이메일을 통해 레벨 테스트(독해, 듣기, 작문)를 진행하게 되며, 학기 시작 전에는 직접 구술 평가를 치른다. 해당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A1부터 C1까지 반이 배정된다. 나의 경우에는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해 학기 시작 전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레벨 테스트를 치를 수 있었다. 학교 사무실 직원과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친절한 편이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무실에 문의하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수업은 오전반(8시~12시)과 오후반(13시~17시)으로 나뉘어 있으며, 중간에 2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내가 수강한 반의 경우 총 3명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으며, 일부 학생들이 수업 중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있었으나 수업에 큰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해당 학생들과 직접 대화

를 나누어 보면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의 학생들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나는 Intensif 수업도 함께 수강하였는데, 이를 통해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말하기와 듣기 영역을 보다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특히 만족스러웠다. 정규 수업만으로는 말하기와 듣기 연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Intensif 수업이 이를 보완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수업 마지막에는 함께 디저트를 나누어 먹는 시간도 있었고, 리옹에 위치한 스타트업 회사를 방문해 회사 소개를 듣는 프로그램, 폴 보퀴즈 시장을 방문하는 야외 수업 등도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리옹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휴가가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총 4개월의 수업 기간 동안 약 3회의 휴가가 있었으며, 휴가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7일 정도였다. 이 기간 동안 여러 도시와 국가를 여행할 수 있었던 점은 분명 장점이었지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꾸 끊기는 느낌이 들었던 것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

2) 학교 프로그램 - 리옹 가톨릭 대학교의 경우 본 대학과 어학원이 분리되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부터 리옹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활동, 프랑스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된다. 그 중 나는 체육 동아리와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체육 동아리로는 탁구부를 선택하였으며 기숙사에서 만난 한국 학생과 같이 참여하였다. 탁구부 활동은 본 대학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공과 국적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해당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탁구를 접하게 되었는데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만약에 혼자 참여하게 된다면 살짝 아쉬울 수 있기에 같이 운동할 친구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언어 교환 프로그램은 수업 시간에 안내를 받아 참여하게 되었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프랑스 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 이를 통해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또한 버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였으나 내가 정보를 잘못 입력한 탓인지 연락이 오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여 아쉬웠다.

어학연수 참여후기
처음 교환학생을 신청했을 때는 해외에서 여행을 하기보다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현지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해 보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하였다. 프랑스에 오기 전에는 프랑스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걱정이 많았지만, 리옹에 도착한 후 이 도시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직접 느끼며 프랑스가 모두 차갑게 느껴지는 나라만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프랑스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번 어학연수는 단순히 언어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나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프랑스라는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며 여러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에서 생활할 때 고치고 싶다고 생각했던 나의 여러 부족한 점들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었다. 더불어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평소 알고 있던 프랑스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는 점도 큰 의미로 남았다. 특히 리옹의 빛 축제와 크리스마스 마켓 등 다양한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 열린 Bal d'UCLY 파티에 직접 참여하면서 여행으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현지 대학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리옹이라는 도시를 더욱 특별하게 기억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리옹은 단순히 공부를 했던 장소가 아니라, 앞으로도 오래 기억에 남을 소중한 장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성장은 앞으로의 삶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 믿는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박재혁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학번 문화예술경영전공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어학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Lyon Catholic University (LCU)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6년 2월 4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2025년도 2학기 어학교환학생으로 리옹가톨릭대학교의 부설 어학원인 ILCF 다녀왔습니다. 먼저 준비과정에서 가장 신경서야 할 부분은 비자준비입니다. 프랑스는 일반적인 비자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캠퍼스프랑스라는 프랑스 정부산하의 교육기관의 면접을 또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 준비과정에서 서류준비의 경우 인터넷에 사람들이 적어놓은 내용들을 참고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수시로 서류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좋고 비자 수령기간이 출국일정과 겹치지 않기 위해 비자 준비는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캠퍼스프랑스 면접의 경우 면접관님과 본인의 프랑스어 실력 및 경력에 따라 프랑스어를 사용할 때도 있고 영어나 한국어를 사용때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심사 및 판단의 자리가 아닌 어학목적 및 동기 열정 등을 확인하는 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프랑스어를 독학한지 1개월정도 된 상태에서 면접을 보았고 한국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학원을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프랑스어 수업을 듣게 됩니다. 가기전에 이메일로 레벨테스트를 진행하며 개강하기전에 말하기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 같은 경우는 학기 초반에 선생님께 말씀하여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업은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고 오전반은 8시부터 12시 오후반은 13시부터 17시까지 수업을 받게 됩니다. 수업은 주 4일 월, 화, 목, 금 수업이며 Intensif를 하게되면 수요일 수업이 추가됩니다. 또한 학기 중간 10월달에 일주일정도 방학이 있고 12월에 방학이 2주가량 있는데 이 기간을 활용해서 다른 유럽국가를 여행하거나 프랑스 다른 지역 여행을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만 25세 이하라면 TGV max라고 있는데 한국의 KTX를 매달 10만원 정도 내고 0원표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79유로이고 3개월은 꼭 써야 하지만 한달에 파리 2번 왕복만해도 이득이기 때문에 파리를 자주 갈 생각이 있거나 프랑스 내 다른 도시들을 여행할 생각이 있다면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파리는 표 구하기도 쉽고 2시간이면 가기 때문에 저는 한달에 한번은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파리 외에도 큰 도시는 다 0표로 갈 수 있어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주말에 여행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충분한 고민 후에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Caf라고 주택보조금이 있는데 이번에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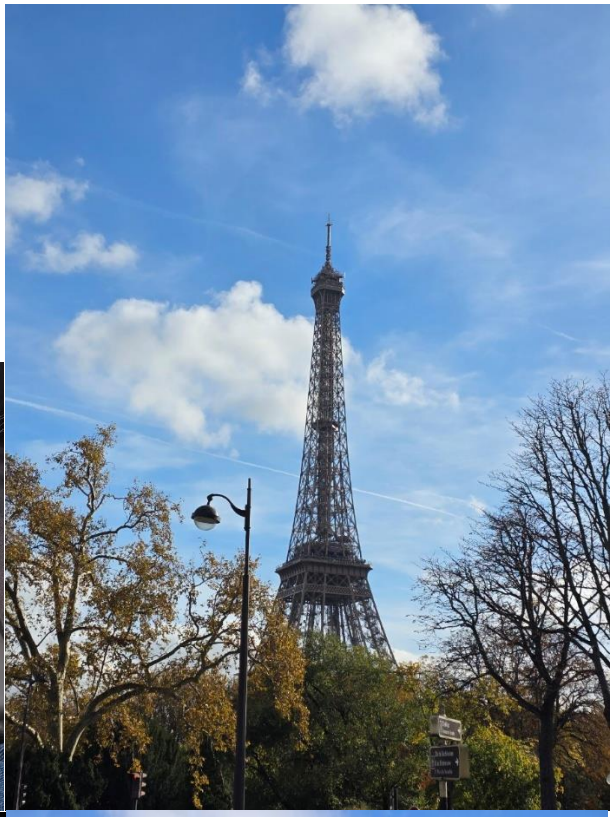
기숙사의 경우 Maison des Etudiants St Bernard에서 거주하였고 기숙사는 선택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명대학교 학생들은 거의 여기로 다 모이게 됩니다. 기숙사의 경우 화장실은 방에 있고 주방만 공유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식기류는 주지만 수저는 없기 때문에 챙겨와야 합니다. 또한 한인 마트가 있으나 걸어가기엔 애매한 위치에 있고 가격도 한국 물가 생각하면 비싸기 때문에 초반에 버틸 라면이나 한식들을 챙겨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는 학교까지 10분, 메트로와 트램을 탈 수 있는 Perrache역까지 10분거리에 있어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기숙사의 커피자판기가 저렴하고 맛도 괜찮은 편이어서 많이 이용하였고 0층에 기부박스가 있는데 자주 들여다보면 괜찮은 것들을 주울 수 있습니다. 저는 추위를 잘 안타는 편이어서 전기장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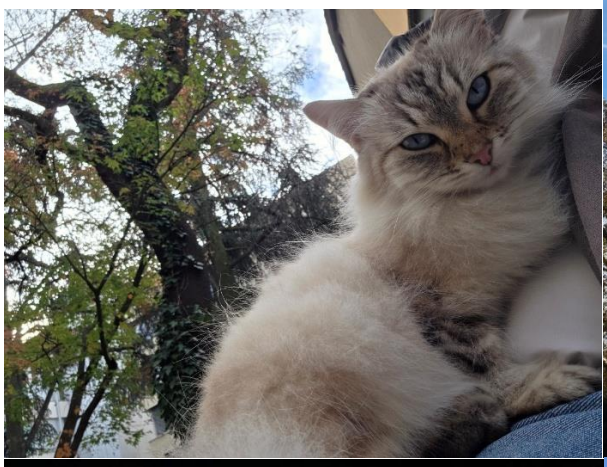
을 가져가 놓고 쓰지는 않았는데, 추위를 타는 편이면 전기장판 등 잘 준비하시는 편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프랑스 외식비용이 상당합니다. 맥도날드가 세트가 우리나라 1.5배정도 되고 식당을 가면 기본 20유로는 써야 합니다. 다행히 식재료 물가는 무난하기에 U express에 가셔서 장을 보시고 직접 해먹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대부분의 장은 학생할인 5%가 되는 U express에서 해결하시면 되고 큰 마트를 가야한다면 Confluence에 있는 Carrefour에 가시면 됩니다. 삼겹살이나 오겹살도 팔고 가격도 합리적이라서 자주 구워 먹었습니다. 라면은 한인 마트가 더 싸고 많습니다. 돈을 아껴야 한다면 바게트에 버터 발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숙사에 터줏대감 고양이가 있는데 애교가 많고 귀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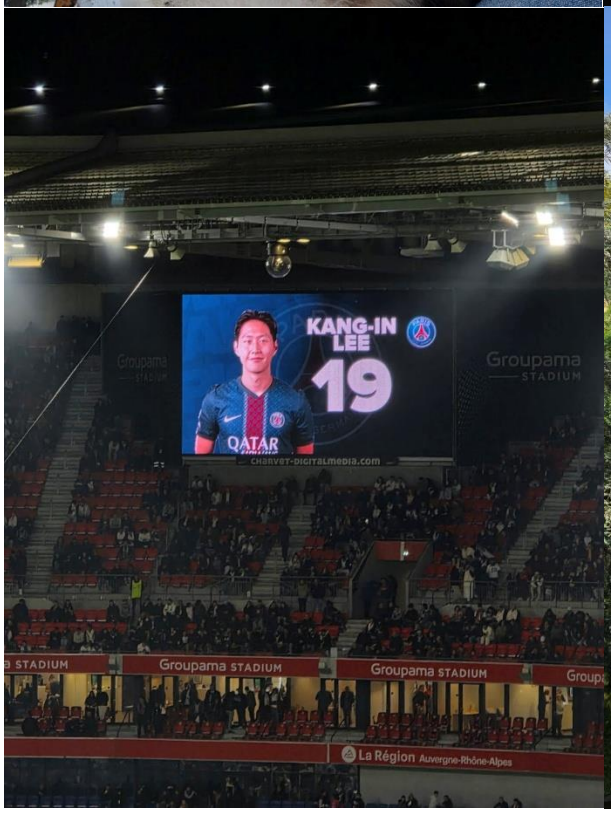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말하자면 준비하는 과정 및 적응하는 과정에서 너무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1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갔고 영어수준도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으나 외국에 생활하는데 있어서 언어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음을 몸소 느꼈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친구를 사귀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수업을 들었을 때는 수업이 프랑스어로 진행되다 보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들어서는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까지 실력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위축되지 않는 태도와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과 대화도 해보고 다양한 활동들과 여러 국가 및 도시들을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학교환의 목적은 각자 다 다르겠지만 값진 교환학생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KANG-IN
LEE
19
QATAR
Groupama STADIUM
Groupama STADIUM
Groupama STADIUM
La Région Auvergne-Rhône-Alpes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홍주희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학번 공간환경학부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6년 01월 26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내용

제가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UCM은 미국 중부의 Missouri주 Warrensburg에 위치해 있습니다.

- 장점

UCM은 오랜 기간 상명대에서 교환학생을 파견한 곳이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여러 절차의 처리나 가서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UCM에 있는 국제 학생회에서도 이전의 상명대 교환학생들과 교류했었고 여전히 친구인 경우도 많아서 한국 학생들에게 호의적이고 많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열립니다. 10월까지는 거의 매주 이벤트가 열렸던 것 같던데 참여하면 여러 사람들과 말할 기회도 생기고 이런 이벤트에서 소개받거나 자주 만나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동 시설이나 도서관, 극장 등의 시설들이 깔끔하고 잘 되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물들이 오래되지 않았고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시골이라 학교 주변이 조용해서 좋았습니다만 이것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개인 성향에 따라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단점

UCM은 중부에서 시골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차가 없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큰 도시인 Kansas city로 갈 때는 차가 있는 현지 친구들과 함께 가거나 한인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드려서 갈 수 있습니다만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하니 자유롭게 이동하기는 힘듭니다.

중부에 있어서 Fall break나 Thanks Giving처럼 긴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가도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갈 수 있지만 공항까지 이동하는게 어렵습니다. 미리 차가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우버를 이용해야 하는데 우버가 비싸기도 하고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 여러명이서 같이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시골이라 여행이 아닌 다른 도시로 짧게 다녀오기는 어려워서 도시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답답해 하거나 지루해 하기도 했습니다.

- 기타

기숙사는 꼭 최대한 빠르게 The Crossing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 방과 부엌이 있는 아파트 형식에 신식이라 시설은 가장 좋고 다른 후기나 블로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기숙사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벌레가 나오기도 하지만 물이 새거나 하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비용적으로도 따져보면 The Crossing이 가장 저렴하거나 거의 비슷해서 웬만하면 The Crossing을 신청하는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가장 인기가 많아서 빨리 마감되니 학번을 부여받고 바로 신청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업들은 전반적으로 확실히 더 자유롭고 편하게 말하는 분위기이고 보통 한국보다 소규모의 수업들로 진행됩니다. 저는 국제 학생이 많이 듣는 spoken/written as a second language 어학 수업 2개와 Scene Design, Cad 전공 수업 2개를 들었습니다.
어학 수업의 경우 국제학생이 듣는 수업이라 과제는 조금 있어도 수업이 확실히 쉽고 분위기도 자유롭습니다. 공부에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고 싶다면 가볍게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향상시키고 싶거나 현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차라리 전공 수업을 많이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학 수업은 국제학생들이라 확실히 쉬운 영어들로 소통하는 반면 전공 수업들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현지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영어나 전공에서 쓰이는 영어들도 들을 수 있어서 영어 향상에는 더 좋았습니다. 특히 1~2000번대 수업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저학년 친구들이 많아서 다가가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3~4000번대 수업도 조금 어렵긴 해도 교수님이나 다른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려 했기에 도전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Scene Design 수업이나 다른 연극,영상 쪽 수업들은 학교 극장이나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도 수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것들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일의 처리나 진행이 한국보다 느리고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처리해야할 일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 빨리 직접 찾아가는 것이 좋고 아니면 담당자님께 최대한 빨리 메일로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결될 때 까지 그냥 기다리지 말고 계속 메일로 물어보면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비용의 경우 몇학점을 듣는지, 기숙사가 어딘지, 밀 플랜을 몇 개 구매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1학기 정규 교환학생이었던 저는 비행기나 기타 비용 포함 대략적으로 총 1000만원 이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간 중간 여행을 다니고 싶다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드니 넉넉히 준비해 가는게 좋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 가서 전공관련 학교 job을 구해 돈을 벌기도 했지만 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보통은 어려워서 미리 준비하거나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걸 추천합니다.

인터넷에 UCM교환학생 후기를 치면 블로그에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찾아보세요!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윤지민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학번 영어권지역학전공
파견시기	2025학년도 동계방학|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e´ Catholique de Lyon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6 년 2 월 28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안녕하세요.저는 프랑스 리옹에 위치한 Université Catholique de Lyon 대학교의 부속어학원 ilcf 에서 한학기동안 어학교환학생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1.출국 전 준비해야할 것

1-1.지원 절차

먼저 지원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교에 학업계획서,교수 추천서,성적 증명서를 제출하고 난 뒤 캠퍼스 프랑스 서류제출,면접 및 대사관 학생비자 발급까지의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캠퍼스 프랑스와 대사관 비자발급 시에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하는데 특히 대사관 비자 발급은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잡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캠퍼스 프랑스 면접 날짜가 확정이 된 후 되도록이면 빨리 대사관 비자 발급 날짜를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했던 블로그**
캠퍼스프랑스 서류 https://blog.naver.com/tjdus5478/223701379209
대사관 비자 서류 https://blog.naver.com/molly393_/223511567460

해당 과정을 준비하는 동시에 기숙사 보조금인 꺄프(caf)를 받기 위해 필요한 아스포티유를 발급해야했습니다.
종로구청에서 기본증명서,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 후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아스포티유를 발급 받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현금만 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한달에 15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해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했던 블로그**
https://blog.naver.com/cassiopeia__29/223669551619

1-2.그 외 준비해야 할 것

-네이버 해외 로그인 풀기

-한국 문자 수신 정지

-트레블월렛 카드 발급

-주거보험 adh 가입 https://blog.naver.com/kometa-/223934545852

-국제학생증 발급 (일부 미술관,관광지 등 무료로 입장 가능)

-전기장판(겨울에는 난방을 틀어도 춥습니다.)

-전자레인지용 저당 밥솥(쿠팡에서 1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가볍고 작은 사이즈의 밥솥입니다.전자레인지를 사용하여 30분만에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감자나 고구마,라면 등도 10분 내외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비상약(약국,병원비가 정말 비쌉니다.)

-쓰레기 봉투용 비닐봉지(기숙사에서 입주 초반에 제공하는 쓰레기 봉투가 하나뿐이라 버리고 나면 이후에 쓰레기 봉투용 비닐봉지가 꽤나 많이 필요했습니다.)

2.프랑스 도착 후 해야 할 것

2-1.공증번역

도착 후 가장 먼저 파리에 위치한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 후 공증번역을 받았습니다.
방문 전 예약은 필수이며 보통 당일 혹은 그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했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mftjdud01/223584741088

2-2.프랑스 도착 후 3개월 이내 학생비자 체류증(offi)을 활성화 해야합니다.(필수)

***참고했던 블로그**
https://blog.naver.com/parkpaper4/222868957701

2-3.프랑스 번호 개통 및 계좌개설

프랑스에서 번호를 개통하려면 은행계좌가 필요하고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프랑스 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유심이나 이심 구입 후 계좌를 개설하고 후에 부이그 번호를 개통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저의 경우 출국 전 한국에서 미리 오렌지 이심을 구매하여 출국 후 2주정도 사용한 후 부이그 이심을 사용했습니다.
이 후 계좌(레볼루트)를 개설하여 기숙사 월세 및 부이그 통신비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실물카드는 gs 편의점 atm 기계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 트레블월렛 카드를 미리 한국에서 발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했던 블로그**
https://blog.naver.com/lovely_melody/223162246539

2-4.교통카드 및 tgv

리옹에서는 tcl 이라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 저의 경우 tcl 정기 구독권을 사용하지 않고 걸어다녔습니다.
기숙사 위치가 좋아 학교와 지하철역을 도보 10분 거리로 갈 수 있고 마트나 광장,시내,시청,성당,미술관 등 웬만한 곳은 도보 20-30분 내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 대형마트인 꺄르푸를 갈 때만 1회권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습니다.
(지하철역 마다 교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무인 발권기가 있음.(1회권당 2.10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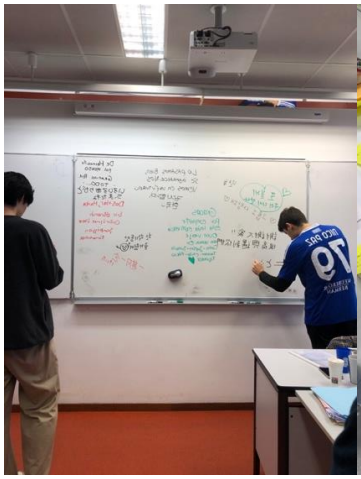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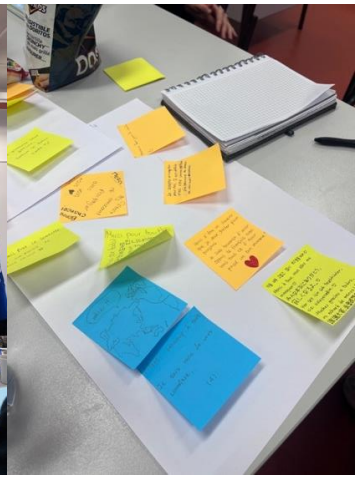
프랑스 교환학생이라면 보통 tgv max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tgv avantage 를 구독하였습니다.
tgv avantage 는 49유로를 내고 1년동안 30% 할인된 가격에 기차를 이용할 수 있고, tgv max 는 한달에 79유로를 지불하고 무료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간,좌석,거리에 따라 사용제한이 있습니다.tgv 자체가 프랑스에서만 이동 가능한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근처 소도시를 여행할 때 많이 사용하였으며 소도시 이동시에도 먼 거리가 아닌이상 버스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참고로 버스 이용시 omio,sncf 어플에서 보다는 flixbus 혹은 blablacarbus 공식 홈페이지에서 교통편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다른 국가 이동시에도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tgv max 보다는 tgv avantage를 추천드립니다.(tgv max의 경우에는 해지수수료(15유로)도 부과됩니다.)

***참고했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oni3030/223630141056
https://blog.naver.com/moontokki1/222742261433

3.수업

3-1.수업내용

저는 intensif 과정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 모두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업은 오전반(8시~12시),오후반(1시~5시)으로 나뉘는데 학기 시작 전 간단한 레벨 테스트 후 시간대는 랜덤으로 반배정이 됩니다.
저는 오전반을 배정 받았는데 확실히 아침수업이라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수업 듣고 돌아와 점심 먹은 후 자유시간을 가지기에 좋았습니다.
수업시간 동안에는 선생님께서 프랑스어로 수업을 합니다.저는 group1 이었기 때문에 숫자를 읽는 법 부터 시작하였고 그 후 4개월 동안은 자기소개,가족소개,마트에서 사용하는 회화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회화들과 단어를 배웠습니다.

3-2.수업 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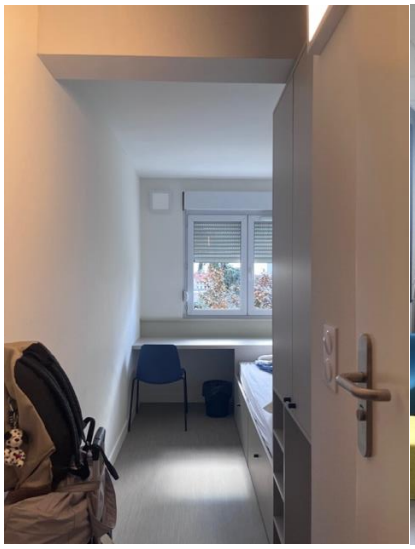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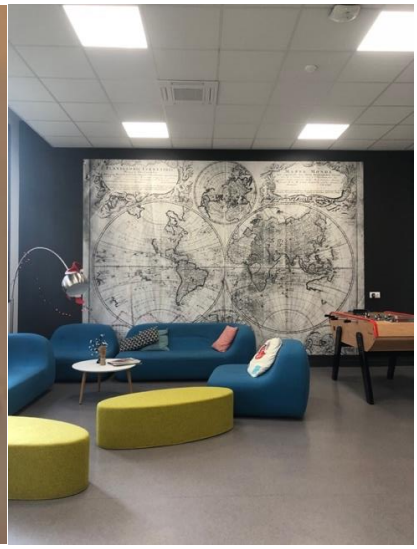
수업 이외에도 학교에서 주체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리옹 시장 구경,오케스트라 공연 관람(강추!!!!!!),영화 관람,안시 여행,트리 꾸미기,크리스마스 마니또 등등.
무료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4.기숙사 시설,가격

제가 머물렀던 bernard 기숙사는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덕분에 매우 청결한 시설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탁구장,뮤직룸,스터디룸,헬스장 등 공용공간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은 1인 1인실에 개별 화장실과 냉장고가 있는 구조라 편리하였습니다.
주방은 층마다 공용주방을 사용하여 개인식기류와 사물함이 제공되었으며 같은 층 친구들과 소통하고 친해질 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팬케이크 만들기, 할로윈 호박 깎기 대회 등 기숙사 내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기준 기숙사 월세 : 599유로**




5.리옹 추천 장소

5-1.마트

U express et drive https://maps.app.goo.gl/sVK1gcUCgkDgDHdi6
: 기숙사와 학교에서 가장 가깝고 저렴했던 마트입니다.
Boursin 마늘 크림 치즈,본마망 캬라멜 푸딩,트로피카나 오렌지 주스,타키스,도리토스 스윗 칠리 페퍼,하리보 스머프젤리,하리보 픽셀젤리는 꼭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Carrefour https://maps.app.goo.gl/tb3X4T9x1FU1wdoz8
: 리옹 쇼핑몰 Confluence 에 위치한 대형마트입니다.
기숙사와는 거리가 좀 있지만 규모가 커 리옹에 위치한 근처 마트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ACE GOURMET, International Store -7/7-Asian Food- LYON
: 리옹에 위치한 한인마트로 불닭볶음면 기준 ace gourmet 보다는 international store 가 더 저렴했습니다.

Action Lyon-Gerland https://maps.app.goo.gl/9QxXqKs2d6PcctQi7
: 리옹에 도착하자마자 필요한 생필품을 사기에 좋은 곳입니다.
기숙사와 거리가 좀 있어 트램을 타고 가야하지만 저렴한 가격대와 다양한 종류의 생필품이 있

어 초기에 필요한 물건들은 액션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참고로 기숙사 주방은 인덕션을 사용하므로 인덕션용 후라이팬과 냄비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2 관광지 및 맛집

Basilique Notre-Dame de Fourvière https://maps.app.goo.gl/VH2qcDew285JufUP8
: 리옹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푸비에르 대성당입니다.
기숙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지하철역 Vieux Lyon - Cathédrale Saint-Jean 에서 2유로를 내고 푸니쿨라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Hôtel-Dieu de Lyon https://maps.app.goo.gl/einKmKNVr4ZCTATE7
: 해 질 때쯤 론강과 Hôtel-Dieu de Lyon 을 바라보며 멍하니 여유롭게 앉아있기 좋은 곳입니다.

Nishiki Ramen https://maps.app.goo.gl/X7SZxqgAZN8H8WMJA
: 가격대가 있지만 정말 맛있었던 리옹의 라멘 맛집입니다.
피크 타임에는 웨이팅이 있을 수 있어 가능하다면 미리 예약하거나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inay's Bakery https://maps.app.goo.gl/JcWwdyToMgfVAuVi7
: 기숙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베이커리입니다.
Roulé aux Pralines 이라는 프랄린 페스츄리를 꼭 드셔보세요.

La Maison Du Goût https://maps.app.goo.gl/4cEvyaoNM2Tb9Ne78
: 개인적으로 프랑스에서 먹었던 바게트중에 가장 맛있었던 베이커리입니다.
가격도 저렴하여 자주 갔던 베이커리중 하나입니다.

학교 카페테리아 머핀
: 학교 0층(1층)에 위치한 카페테리아에서 판매하는 머핀이 있습니다.
학생증이 있으면 할인 받아 먹을 수 있으며 쇼콜라와 초코맛을 무조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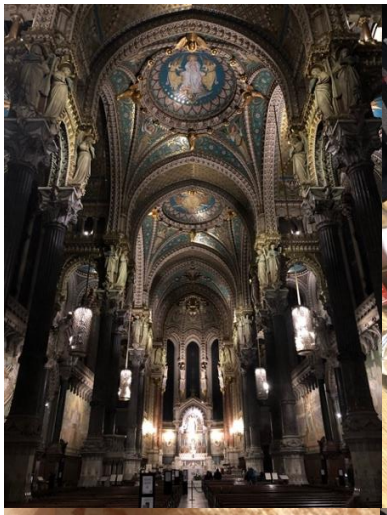
Ta5ty Pizza - Lyon 2 - Confluence https://maps.app.goo.gl/FhAgD6TLRX3zrei68
: 피자 한판을 5유로 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기에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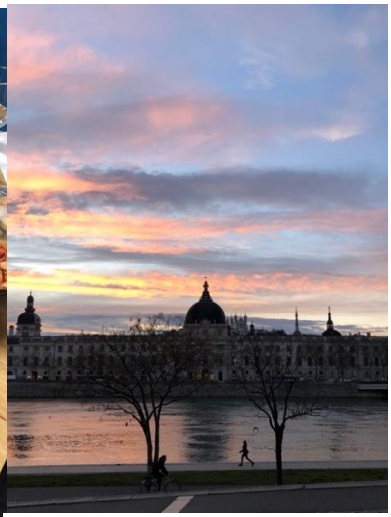
Tacos World https://maps.app.goo.gl/ggzhgD1pA6YN2Jj38
: 양도 많고 저렴한 가격으로 고기 종류 및 소스를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타코(브리또)를 먹을 수 있습니다.

Workshops Marinette https://maps.app.goo.gl/q3XgXDZbLchTPHGLA
Les ateliers de Marinette https://maps.app.goo.gl/naQUKv8b565mu8Ur5
: 빈티지 엽서,피규어,키링,책 등등을 판매하는 빈티지샵 입니다.

Hello Cutie Vintage https://maps.app.goo.gl/iQhK8ZMSnrsRnbRaA
: 질도 좋고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이 자주 입고되는 빈티지샵 입니다.

Puzzle Cafe https://maps.app.goo.gl/UXBeTP8vbjhpUJBc6
: 기숙사에서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한 분위기 좋은 카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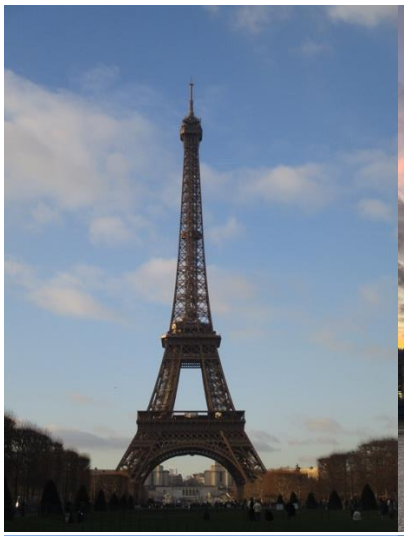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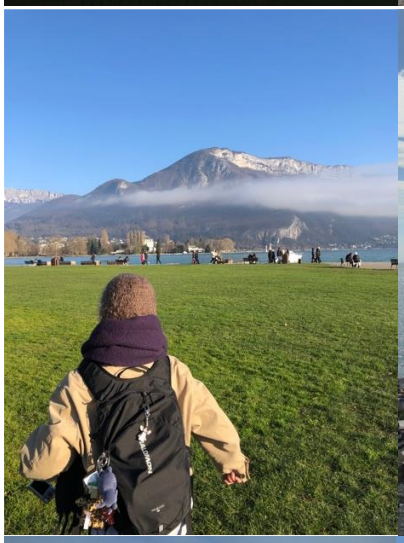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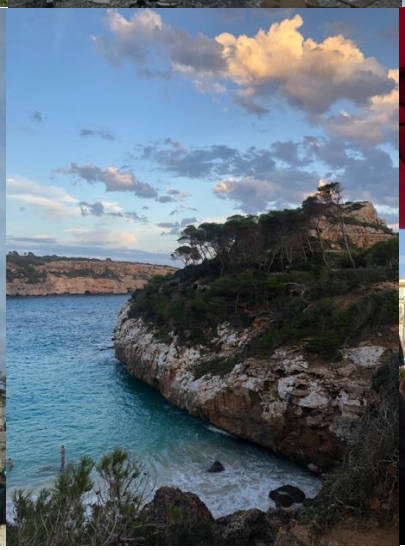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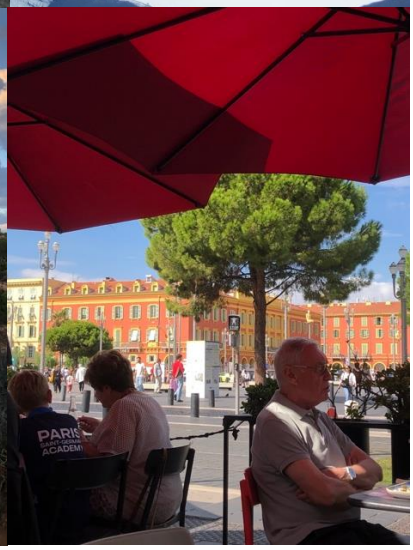
6.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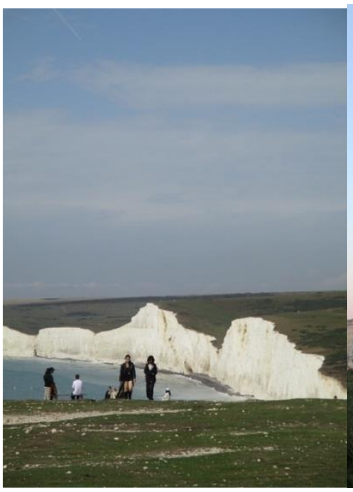
프랑스는 지리적으로 주변 유럽 국가들을 여행 다니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파리의 경우 리옹에서 2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어 리옹은 접근성이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환학생 기간동안 총 12개국과 프랑스 소도시 9곳을 여행 다녔으며 특히 긴 바캉스 기간 덕분에 연말에는 2주정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돌발 상황 속에서 당황하기보다는 '이정도 쯤이야' 라는 자신감을 얻었고 점차 능숙하게 문제를 수습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행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먹고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을 넘어 내가 무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그게 정말 사소한 것 일지라도요.
단순히 여유를 즐기는 여행도 좋지만 자신만의 명확한 목표를 정해 떠나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행의 목적이 뚜렷할 때 그 경험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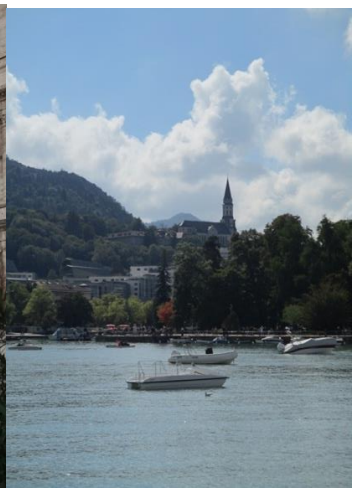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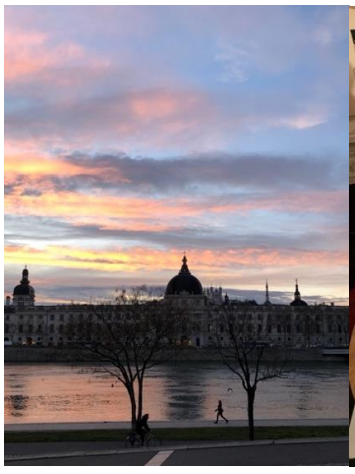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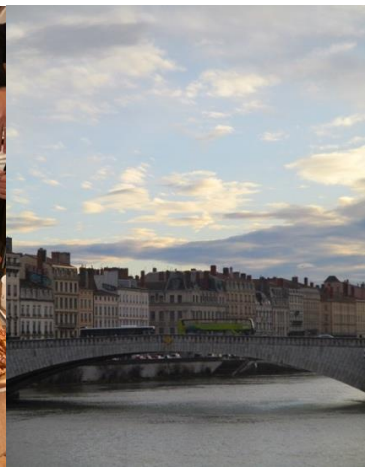




7.마무리

저는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에 특별한 애정이 있었다기 보다는 '해외 경험' 에 초점을 두고 교환학생을 오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를 좋아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고작 5개월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의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뒤따랐습니다.그치만 결국에는 혼자 여행을 떠나고,장을 보고,직접 요리도 하고,내가 좋아하는 공간이 생겨나가는 과정이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곳 사람들은 내가 눈으로 보고 한참을 서성거리던 곳에서 출퇴근을 하고 자전거를 탑니다.또한 제가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상상만 해왔던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친구의 집에 초대 받아 라끌레를 만들어 먹고,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홈파티를 즐기고,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에는 하나가 아닌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이들과 어울리며 이러한 교류의 시간은 저의 시야를 넓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 타인과 소통하며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곳 친구들은 자기표현이 확실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나이에,현실에 구속 받지 않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들을 보며 남들의 시선과 현실에 의식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나다운 선택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경험하고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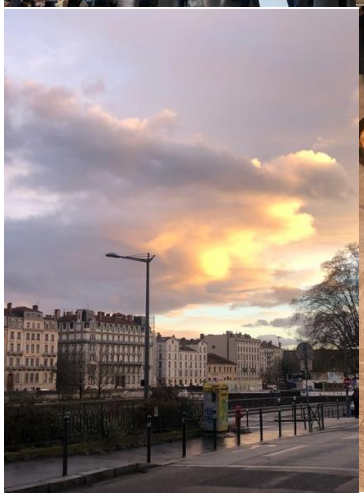





dinh van



UCLy


LE CAFE DU MARCHE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안정빈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학번 문화예술경영전공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LYON CATHOLIC UNIVERSITY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6년 1월 23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1. 기숙사

학교에서 연결해주는 Maison des étudiants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Saint Bernard 기준 월세는 599유로였고, 보증금 600유로, 등록비 125유로 정도가 추가로 들었다. 조금 더 저렴한 옵션의 다른 기숙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다. 방은 조금 좁기는 했지만 홈페이지에 소개된 그대로였고, 수납공간도 꽤 넉넉해서 지내는 데 문제는 없었다. 화장실과 샤워실도 작지만 방 안에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냉장고도 있긴 했지만 냉동실이 없어 조금 아쉽긴 했다.

공용주방이 층마다 두 곳씩 있고, 개인 선반과 그릇, 수저들도 제공해준다. 프라이팬이나 냄비 등 조리도구도 공용시설에서 대여 가능하나 초반에 따로 갖추는 것이 편할 듯하다. 열 명 정도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었지만 식사 시간이 크게 겹치진 않아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은 없었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청소도 해주셔서 쾌적하게 이용이 가능했다.

세탁실은 지하 1층에 있고, 세탁기와 건조기가 세 대씩 갖추어져 있다. 세탁은 1회 3유로, 건조는 1회 1유로로 세탁 어플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결제마다 리뷰(별점)을 남기면 포인트를 주는데, 포인트가 꽤 쌓이면 무료 이용권도 제공하니 꼬박꼬박 리뷰를 남기는 것이 좋다. 저녁 시간대에는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가끔 한두 대가 고장이 나 사용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던 적도 있다.

엘리베이터는 올라갈 때만 이용이 가능하며, 밤 10시 이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주말에는 아예 오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유럽 엘리베이터가 대부분 이런 건지 크기가 매우 작아, 원칙적으로는 한 번에 두 명까지만 탑승이 가능하다.

0층 공용시설에는 리셉션, 휴식공간, 스터디룸, 음악실 등이 있다. 1층부터 5층까지는 방이 있는데 성별 구분은 없었다. 나는 5층을 배정받았는데, 주변에 같은 상명대생이나 한국 학생은 없었다. 비어 있는 방에 무작위로 배정해주는 듯하다. 기숙사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리옹 거주 대학생용 기숙사라 그런지 프랑스인 학생들도 많았다. 방음도 잘 되는 편이라 벽간소음도 딱히 느끼지 못했다. 공용주방 근처 방에 배정받은 친구들은 가끔씩 소음이 들린다고 했던 것 같다.

지내는 내내 불편함은 크게 없었다. 다만 겨울에 지낸다면 방한용품을 넉넉히 챙기는 것이 좋을 듯하다. 히터 최대 온도가 21도이고, 전기장판 사용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이라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는 힘들 듯하다.

2. 학교

리옹 카톨릭 대학교의 어학 교육과정인 ILCF 과정을 들었다. 월화목금에만 4시간씩 수업을 진행하는 세미 인텐시브 과정과, 여기에 수요일 4시간 수업을 더한 인텐시브 과정이 있는데 상명대 학생은 인텐시브 과정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기 시작 전 레벨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 결과에 따라 그룹이 나뉜다. 한 그룹당 10-15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오전반(8-12h)과 오후반(13-17h)이 랜덤으로 배정된다. 일을 하거나 사정이 있는 경우 원하는 시간대의 반으로 배정해주는 듯하다. 그룹 배정 이후에도 본인이 느끼

기에 레벨 조정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거쳐 조정해준다. 나의 경우 한국에서 델프 A2를 취득한 상태였는데, 레벨 테스트 이후 B1 목표 수준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월화/목금으로 두 분의 교수님이 수업을 맡는데, 전체 수업을 프랑스어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벅차긴 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은 덕분에 그 친구들과 교류하며 영어 실력도 함께 늘릴 수 있었던 것 같다.

여러 학생 중 특히 유럽 언어권 친구들은 회화 실력이 좋아, 초반에는 레벨 조정을 고민할 정도로 수준 차이를 느끼기도 했다. 그렇지만 어떤 친구들은 말하기에 능통하면서 작문에는 약하기도 했고, 독해에는 강하지만 청해는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작문/독해/청해/구술 모든 영역을 평균적으로 고려해 레벨을 배정해주는 듯하니 한 영역에서 수준 차이를 느끼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수요일에만 진행하는 인텐시브 수업의 경우 약간은 실망스러웠다. 이전 후기를 읽어보면 델프 준비반이나 발음 수업 등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학기에는 말하기와 작문을 중점적으로 하는 수업으로만 통일되어 이루어졌다. 세미 인텐시브 수업만큼 커리큘럼이 촘촘하지는 않아 쉬어 가는 수업처럼 느껴졌고, 조별 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많이 해이해지기도 했다. 그래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긴 했다.

결론적으로 인텐시브 수업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ILCF 전체 과정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수강 이후 프랑스어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아 뿌듯했다.

3. 생활

모든 것들의 가격이 한국의 두 배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생활비 외에도 교환학생 준비 비용과 기숙사비, 학교 등록비 등 매달 크게 빠져나가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커 부담이 많이 되기도 했다. 그래도 식재료 자체는 저렴한 편이라 외식을 하지 않는다면 식비는 노력하는 만큼 절약이 가능하다. 또한 기숙사가 학교/Perrache 역과 도보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비도 크게 들지 않았다. 기숙사가 리옹의 중심부인 5구에 위치해 있어 도보 3-40분이면 어디로든 접근이 가능해 TCL 카드도 따로 만들지 않았다.

프랑스 교환학생이면 모두 신청한다는 CAF의 경우 11월쯤 신청 후 간절하게 기다리는 중이지만, 1월인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 참고로 이번 학기 CAF를 신청했다는 주변 한국인 중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은 없었다.

리옹에서는 TGV나 플릭스 버스를 이용하면 파리나 근교로 금방 이동이 가능해 여행을 가기에도 좋았다. 내 경우 대부분의 여행에서 플릭스 버스나 블라블라카를 이용했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비용이 훨씬 저렴해 이용하기 좋았다. 또한 교환학생 비자를 소지하거나 학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여러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을 포함한 여러 문화시설이 무료나 할인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곳에 있는 동안 최대한으로 경험해보는 것이 좋다.

리옹에서는 뤼미에르 영화관을 추천한다. 독립예술 영화관 브랜드로 리옹에만 세 군데 위치해있는데, 학생가로 8유로 정도에 감상이 가능하며 최신 영화들도 자주 상영한다. 연극이나 무용 공연을 주로 하는 셀레스틴 극장도 추천한다. 1층석은 조금 비싸지만 3층석 학생가를 이용하면 5-10유로 정도에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다. 겨울학기를 보낸다면 12월 빛의 축제에서도 구경할 것들이 많다. 리옹은 꼭 타지로 나가지 않아도 즐길 거리가 많은 도시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다양한 문화생활을 해볼 수 있다.

오래 전부터 꿈꾸던 교환학생 생활이었다. 오기 전까지는 한 학기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충분히 많은 것을 경험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새로운 언어와 환경에 부딪혀보며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홀로 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길러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 프랑스어를 내뱉은 순간, 몇 시간씩 플릭스 버스를 타며 여행지를 다니던 순간, 따뜻한 조언을 건네주던 외국인 친구들까지 하나하나 선명하게 남는다. 아쉬웠던 부분들까지 모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장재연
학번(연도만) 및 전공	23학번 융합경영학과
파견시기	2025학년도 1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어학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리옹가톨릭대학교(LCU)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6년 2월 2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프랑스 비자 신청>

비자 신청은 미리미리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가지 제가 간과했던 점은 2차 면접 이후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여권을 (대사관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읽으시는 분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그 사이에 일본여행을 다녀오는 바람에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해외여행을 가시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가실거면 그 전에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면접도 너무 떨지 마시고 본인이 프랑스에 왜 가고 싶은지를 명확히 정리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로와 연계해서요! 저는 프랑스를 선택했지만 프랑스어는 한마디도 못해서 면접은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중간 중간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 것은 한국어를 섞어서 말했는데 다행히 잘 넘어가주셨습니다.. 정신없이 하나씩 해치우다보면 출국일이 금방 다가오니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자 신청과 별개로 국제학생증은 꼭 발급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활용을 하지 못했지만 국제학생증 사이트 내에서 항공권을 예매할 시 위탁수화물이 2개 무료더라고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많은 짐들을 챙기실 수 있으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

어학교환학생이다보니 리옹가톨릭대학교의 부설 어학원인 UCLY에서 한 학기동안 프랑스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프랑스 어학연수를 선택한 이후 정말 짧게 학원을 다닌 정도라 왕기초라고 봐도 무방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프랑스에 도착하여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던 날, 전혀 답변을 못 해 20개 레벨 중 1반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시험때는 A2 시험에 평균 이상 점수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프랑스어에 더 많은 열정이 있는 분이시라면 조금 더 높은 반에 가셔도 좋지만, 1반이어도 기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치만 수업 때 Gemini나 ChatGPT가 없으면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선생님들도 정말 열정이 넘치셔서 여러 작문 테스트나 암기 테스트를 수업 중간중간 하라고 내주시는데요. 저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AI를 활용하다보니 나중에 쓰기실력이 많이 안늘었습니다. AI는 필요할 때만 활용하되, 스스로 사고해야 하는 시간에는 부족하더라도 직접 고민해 보고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학기를 마무리했지만 B2까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반이다 보니 조금 더 선생님이나 반 친구들이 화합하는 활동이 많았습니다. 반 친구들과 친해져서 함께 크리스마스휴가 직전에 식당에서 밥도 먹고, 리옹 빛축제도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파티에

초대받아 함께 놀기도 하는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쌓았기에 정말 만족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은데요, 오케스트라 공연은 꼭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료로 정말 환상적인 오케스트라 공연을 들을 수 있어서 만족했었습니다. 그 밖에도 영화감상, 시크릿산타, 폴 보큐즈 시장 치즈시식 같은 활동에 참여했는데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초반에 그런 행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니, 원하는 활동이 있으면 기한에 맞춰서 신청하시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숙사>
저는 saint Bernard 기숙사에서 거주했습니다. 학교까지 10분이면 가고 u express도 매우 가까워서 지리적으로는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환율이 올라 599유로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는데요. 조금 더 알아볼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CROUS 기숙사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프랑스에서 만난 한국분이 470유로? 정도에 주방, 방, 화장실 모두 개인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상명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saint bernard에서 살았기에 다시 선택해도 이 기숙사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층에 왼쪽 오른쪽 각각 1개씩 주방이 있어서 층별로 주방이 2개씩 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의 주방은 저 말고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또 다른 층에는 한국인이 많기도 했습니다. 초반에는 모두 외국인인 점이 부담스러웠지만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여성 친구들은 K-POP에 대해 잘 아는 경우도 많았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들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친해진 친구들도 생겼고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도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이왕 프랑스에 나간 거 조금만 더 용기내서 말을 걸고 스몰토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말주변이 없는 편이었지만, 자꾸 대화를 시도하다 보니 실력이 늘더라고요! 프랑스인들에게는 말을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헝가리, 미국, 브라질 그리고 호주 등등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기숙사에 살고 있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행>
저는 프랑스 내로는 파리 4번, 마르세유, 아비뇽, 안시, 샤모니 를 다녀왔고 다른 나라로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를 다녀왔습니다! 많이 다녔다고 하면 다녔지만 조금 더 부지런히 다닐걸 그랬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Omio 앱을 이용하면 어떤 경로가 최적인지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flix bus는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BlaBlaCar Bus도 괜찮지만, 당일에 버스가 취소된 적이 있어 가급적 FlixBus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blablacar bus에는 카풀제도가 있습니다. 두 번 정도 이용해 보았는데 다들 친절하셨고, 가격이 더 저렴할 때도 있어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 'Super driver' 인증이 되어있는 분만 쓰시길 권고드립니다.

<준비물>
평소 한국에서 요리를 자주 하지 않으셨다면, 블록국이나 고추장을 너무 많이 챙겨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국을 자주 먹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0개가 넘는 블럭국을 챙겨가서 마지막에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왔습니다. 가게 되면 마트 물가가 정말 저렴하고 결국 프랑스 마트에서 늘 장을 보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한국 조리음식들은 챙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냄비나 드라이기 같은 부피가 크고 꼭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가시게 될 텐데요, 'ACTION'이라는 가게를 추천합니다. 기숙사에서 트램을 타고 이동해야하긴 하지만 action이 한국의 다이소 같은 느낌으로 정말 저렴하게 물건을 팝니다. 초반에 저도 거기서 냄비밥을 해먹기 위한 냄비, 냄비뚜껑, 프라이팬, 조리기구, 수건을 구매했습니다. 한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1인용

이라 생각해서 제일 작은 프라이팬을 골랐는데, 가급적이면 큰 프라이팬을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기숙사에 사는 다른 여러나라 친구들이 큰 프라이팬으로 한번에 대용량 파스타를 만들어 소분해 나누어 먹는 모습이 매우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제일 작은 프라이팬으로 구매해 그때 그때 해먹어야 했습니다.

렌즈를 착용하신다면 리뉴(세척액)나 여분 렌즈는 반드시 챙겨가시길 권장합니다. 저는 챙겨가지 못해 현지 약국에서 구매했는데, 한국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에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는 라로슈포제나 아벤느가 저렴하고 좋다고 들었지만, 생각만큼 저렴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화장품이 최고입니다.

그 밖에도 어댑터형 충전기(사용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만일을 대비한 비상용 아이템), 트래블월렛 카드 (친구들과 비용을 나누어 결제하기 편리함), 동전지갑, 도난방지줄, 보조배터리, 손톱깎이, 압박스타킹, 샤워용품 소분용기, 펜, 전기장판, 목도리, 장갑, 우산, 이어폰, 젓가락(강력 추천!!!), 반창고, 상비약(감기약 같은 경우는 근처 병원에서 2주 분량 정도 넉넉히 받아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이소 여행용 휴지, 물티슈, 머리끈, 캐리어 무게 측정기(저는 친구에게 빌려썼는데, 귀국할 때 아주 유용했습니다. 위탁 수화물 추가 요금을 방지하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텀블러, 욕실 실내화, 공용공간 신고 다닐 실내화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주방용 가위랑 집게도 집에서 챙겨갔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자취를 해 본 적도 없고 집 밖에 나와서 살아 본 경험이 프랑스가 처음이었는데요! 프랑스 마트 안에서는 종종 인터넷이 터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점원에게 문의하면 프랑스어로만 답변을 받아 당황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때 좌절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었는데 그 잠깐의 시기가 지나고 나니 인생에 있을 최고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준비하다 보면 막막함이 밀려오지만 프랑스에 도착하면 모두 나와 같이 혼자 준비해서 프랑스에 있는 한국 친구들이 많습니다. 분명 잘 맞는 친구들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원래는 미국 교환학생을 희망했으나 토플 문제로 인해 프랑스로 오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프랑스를 선택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유럽권은 모두 붙어 있어 여행 다니기가 편리하고 모두들 정말 친절합니다. 다들 기회가 된다면 꼭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이 글을 읽고 가시는 분들 모두 더 많은 즐거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한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3학번 애니메이션전공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MISSOURI SOUTHERN STATE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6년 03월 14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들어가는 글- 파견 전 준비]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전공 3학년 한비입니다. 저는 2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2025-1학기 휴학 후 2025-2학기에 파견되었습니다. 정규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으므로, TOEFL을 응시했고 – 해당 준비는 1개월 반정도 바쁘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2월 중순쯤 학원을 등록해 다니면서 2월 초에 최종 성적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말씀드리자면… 휴학을 하고 준비하길 매우매우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자 인터뷰, 각종 서류 제출 등 자잘하게 준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ㅠㅠ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 해외 교환학생 장학금도 수혜하고자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더욱 바빴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파견교와 해외 생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게요!

*파견 기간 08월~12월 (+여행 1달: 최종귀국 1월 중순)
여름~겨울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모든 설명을 드린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준비물]
(자세한 건 다른 분들 것 참고 바랍니다!! 저는 꼭 챙겨야한다 느꼈던 것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 캐리어 (기내용 캐리어 필수!)
  : 24인치 캐리어 하나, 28인치 캐리어 하나, 기내용 하나 = 총 3개 가져갔습니다! 저는 세 개 다 꽉꽉 채워서 잘 썼고 특히 기내용 캐리어는 짧게 여행다닐 때 유용해서 꼭 챙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없는 친구는 현지에서 결국 늘 구매하더라고요)
- 옷
  : 다른 선배님께서 많이 챙기지 말고 현지가서 사라고 하셨는데 이건 depends on 파견 지역인 듯 합니다…!! 많이 챙겨가면 짐이 되는 건 맞는데 (넣을 공간도 없음) 제가 있던 미주리 중부는 정말 shopping을 할만한 곳이 없어서…… 최소한으로 옷을 챙겨갔다가 입을 옷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았네요 ㅠㅠ 자주 입으시는 옷이 있다면 챙겨오시고, 막 입을 추리닝 같은 건 저는 현지에서 사 입었습니다.
  .. 블레이저 자켓(또는 정장) < 공식 행사 때 입을 일이 꽤 생깁니다. 챙기세요!
  +) 선글라스 (여행 때 필수)

- 비상약
  : 감기약! 이건 코/목감기약 2개정도 챙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환절기에 코감기 한번씩 꼭 걸리는 편이라 ㅠㅠ 한 통을 금방 먹더라고요… 평소에 자주 안 아프신 분들도 여행 끝나고 감기걸리는 경우도 있고 일교차 심해서 아플 수도 있으니 넉넉하게 챙겨오시길 추천드립니다.(2-3통) + 타이레놀, 소화제, 지사제 등 챙겼습니다. 저는 타이레놀 외에는 챙겨갔는데 먹지 않았습니다!

- 손톱깎이&손톱파일
- 칼, 가위
- 반짇고리(드레스 어깨끈 수선할 때 필요했어요. 저는 안 챙겨가서 현지 Friendship family 에게 빌렸습니다)

[여행]
- 학기 중: 시카고, 토론토(나이아가라), Dallas(텍사스), Indiana, Cincinnati(OHIO), KENTUCKY, St. louis(Missouri)
- 학기 후: 미서부- SFO, LV, 그랜드캐니언, 앤털로프 캐니언 등, LA, / 뉴욕

*캐나다 여행 주의사항!! ETA 전자여행허가서를 꼭!! 적어도 하루 전에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교내에서 담당자가 사인해주는 서류와 같은 걸로 혼동해서… 당일 날 공항까지 가서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ㅠ 결국에 어찌저찌 티켓을 바꿔 다음 날 정상 출국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서류나 증명서 등은 늘 두 번 세 번 Double check하세요!! (I-20, 교내 담당자 사인 서류, ETA 전자여행허가서 등 다 챙기기- 실제로 서류 꺼내보라 합니다)
+ ETA 전자여행허가서 발급 비용은 1만원 이하입니다. 구글에 검색하시면 맨 위에 광고 링크가 뜨는데 이건 대행 수수료라면서 거의 10만원 이상을 떼가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환불도 잘 안 해주니 꼬옥 천천히 공식 사이트에서 하셔서 엄한 돈 지출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 여행은 날씨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시카고에 9월 노동절에 한 번, 11월 말 Thanksgiving day 연휴에 두 번 이렇게 갔는데 9월에는 날이 좋아서 많이 걷고 돌아다녔던 반면, 11월에는 너무 추워 강 근처에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ㅠㅠ

[수업]
- 12학점
- Motion Graphics, Digital Illustration, Advanced Drawing, International Studies(총 4과목)

(후기)
- 12학점이 딱 적당하고 괜찮았던 듯 해요. 제가 수강했던 Art 과목들은 과제도 꽤 나오는 편이라, 평일에는 수업듣고 주말 4주 중 2주~3주는 과제하며 보냈던 것 같네요.
- Art 3과목은 제가 흥미있어서 시간표 맞게 들은 거고, International Studies는 교환학생들에게 추천되는- 별로 어렵지 않은 수준의 과목이래서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토론 많이 하고 (간단하게 의견 묻는 정도) 편하게 듣기 좋았어요! 시험도 중간고사는 비대면 online, 기말은 대면 지필고사였습니다.

1. Motion Graphics
★★★★☆
: After effect 배우는 수업. 실습 위주 수업입니다. 발표/크리틱 자주 있습니다!
- 과제로는 Reverse Storyboard, Animating(도형), Logo animation, Typo animation 이렇게 네 개 했던 것 같네요. 수업 2시간 반동안 30분~1시간 정도 이론&실습 진도 나가고 개인 작업 시간도 주십니다. (매번 조금씩 차이 있음) 애니메이션 12가지 법칙 설명부터 쭉 알려주셔서 애니 기초로 적절한 수업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본교 1학년 때 들었던 내용이라 기본 이해가 좀 있었고, 따라가는데 무리는 없었습니다. 발표할 때는 대본 작성해가서 보면서 읽어도 돼요! International 학생인 거 감안해서 다들 이해해주십니다 ㅎㅎ

2. Digital Illustration
★★★★☆
- Adobe Illustrator 다룹니다. 펜툴 쓰고, 이런저런 실습 해요. + 발표&크리틱
- 과제는 상상의 대학교 Mascot 만들기, Postcard 제작, Low poly 작업, Comic project 이렇게 네 개 였습니다. 수업 중 실습 시간 많이 주십니다. 그래도 가끔 퀄리티 높이려고 수업 외 시간 작업을 하긴 했습니다. Motion Graphics와 같은 교수님인데 보통 평가는 짧게 하시고 응원 많이 해주십니다. ㅎㅎ 크리틱은 학생들끼리 더 활발한 느낌이었어요. 이 수업 중 한 과제물을 교수님께서 인상적으로 보셔서 awards 출품을 제안받았습니다. 실제로 수상으로 이어져 인상깊은 과목이에요!
-

3. Advanced Drawing
★★★☆☆ (개인적으로는 ★★★★★)
- 여러가지 재료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콩테, 챠콜, 목탄, 오일파스텔 등 사용했습니다.
- 교실 내에서 주로 드로잉했고, 가끔 날 좋을 때 야외드로잉, 후반부에는 도서관 가서 책 빌리고 그 작가 분석해서 (영감 얻어서) 재창조하는 과제 있었습니다.
- 과제 좀 있습니다. 수업 외 시간투자도 꽤 했던 과목입니다.

- 수업 교재를 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안 샀습니다…ㅎㅎ 없어도 프린트 나눠주셔서 충분히 따라갈만 했어요.
- 일단 교수님이 정말 좋으세요! 친절하시고 예술에 진심인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열정적으로 봐주고 가르쳐주려고 하셔서 수업 끝나고 거의 매번 30분~1시간씩 더 얘기하다 가곤 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 추천도 해주셔서 좋았어요.

+) Intermidiate Drawing 학생들과 같은 시간대에 수업을 듣는데, 평가와 기대치, 과제 양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누군가에게는 수업 외 과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별 3개 줬습니다.

[기숙사]
(추천 기숙사)
[Quads]
- 장점: 요리 가능. 개인 화장실
- 단점: 좀 오래됨. 그치만 저는 딱히 불편한 점 못 느꼈어요!

[Lion Village(이하 라빌)]
- 장점: 요리 가능(4인실만 해당, 2인 1실은 only 침대만 있음!), 가장 신축. 층별로 휴게 공간 및 Study room 있음.
- 단점: 화장실은 방에 1개인가 2개만 있는 걸로 알아요. 캠퍼스 제일 안쪽에 있어서 Dining hall이나 수업듣는 건물 갈 때 조금 멀다고 느껴짐!

⇨ 개인 공간 원하면 Quads, 신축이 좋다 하면 Lion Village! 라빌 안 살아도 Study room 이용 가능합니다~ Quads에서 5분 내외 거리라 저도 종종 가서 과제하고 그랬어요!

+) East hall이나 다른 Dorm도 몇 개 있는데 거긴 싱크대나 stove가 없어서 요리 못 하고 진짜 전형적인 기숙사 타입이라고 들었어요. (多인 1실)
-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저는 요리를 좋아하고 개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꼈기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Quads에 살았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 다들 Lion Village와 Quads에 살고 싶어해서 늦게 신청하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계속 확인하다보면 한 자리씩 비니까 그때 후딱 잡으시면 됩니다. 만약 놓쳤다면 기숙사 바꿔달라고 메일 보낼 수도 있는데 처리가 진짜 느려서… 안 될 수도 있어요

[Friendship family]

-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 교회를 갔습니다. 원래 종교가 있어서 어울리는 데 어렵지 않았어요!
- 저희는 다른 집에 비해서 엄청나게 특별한 걸 매주 한 편은 아니었는데, 자주 만나는 프패 보면 퍼레이드를 보러 간다거나 매주 외식을 한다거나 하더라고요. 연락이 잘 안되는 프패의 경우 바꿔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지 가족분들이랑 식사도 하고, 가족분 아이의 학교 학예회 같은 곳에도 갔어요. Thanksgiving~연말 시즌에 프패 분 집에서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영화도 봤어요. (K-pop demon hunters), 프패와 함께하는 학교 행사에도 거의 참여해주셨습니다 😊
- 마트나 공항 갈 때 부탁드리면 태워다주시기도 했어요!

[친구]

⇨ 현지에 이미 파견되어있던 한국인과의 연결고리 or 룸메이트 or 같은 수업 듣는 친구

- 저는 1번: 이미 파견된 한국인과 친해져서 다른 International Student와도 친해진 케이스입니다. 그 중 한 명이 제 room 바로 옆방에 살아서 자주 친구 방 가서 놀고 그랬어요. 같이 수업 듣는 친구랑 친해지기에는 따로 약속을 잡는게 애매하긴 합니다. 룸메이트랑 친해질 가능성은 높은 듯 해요. 저는 방에 잘 안 있어서 엄청 친하진 않았는데, 다른 방 보니까 같이 놀러가고 매번 Dining hall 에서 밥먹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기회가 안 생긴다! 하면 International club에서 하는 행사에 자주 참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무리]

- **영어** 못 해도… 어찌저찌 살아지긴 합니다…! 그치만 영어 실력이 좋다면 현지 환경을 더 깊이있게 느끼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초반에는 말이 잘 안 나와 고생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편해지더라고요. 일단 말을 많이 뱉어보고 영어를 쓰는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 유튜브 추천: 라이브아카데미, 헤일리쌤 100문장)
- **파견 기간 한 학기 체감**: 친한 친구가 생기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집니다… 실제로 저도 연장하고 싶었는데 여러가지 이유를 고려해서 귀국했어요. (학점, 스펙, 비용 등) 지금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Missouri, 제가 있던 지역은 할 게 너무나도 없어서 한 학기 더 지냈다면 심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이 아무래도 빨리빨리 성과를 내기는 좋아서 일이 많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학기 경험 쌓고 돌아오셔도 충분합니다~~
- **교환 정말 추천!!** 교환학생을 통해 시야가 많이 트였다고 느꼈고, 혹시 고민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꼭 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에 기억에 남을 소중한 경험을 한 가득~ 쌓고 오실 수 있을 겁니다.
- 여유가 되신다면 **여행** 꼭 많이 다녀보세요. (날씨 좋은 날 시카고 정말 추천!!)

다들 파이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다면 카카오톡 @hbani37로 연락 주세요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이주윤
학번(연도만) 및 전공	21학번 경영공학과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Stony Brook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6년 1월 26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도 2학기에 Stony Brook University로 어학교환학생을 다녀온 경영공학과 이주윤입니다. 뉴욕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거나 Stony Brook University를 고민 중인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 파견대학 선택이유 및 정보

제가 선택한 Stony Brook University는 뉴욕 주립대학교로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한 가장 큰 기준은 '접근성'이었습니다. 학교 수업 역시 중요하지만, 직접 보고 느끼며 경험하는 배움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수업 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Stony Brook University는 캠퍼스 내에 기차역이 있어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크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뉴욕시티와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 덕분에 뉴욕의 미술관, 박물관, 전시 및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직접 경험하기에 충분한 환경이라고 판단하여 본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수업 이후 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해 일주일에 최소 세 번 이상 뉴욕 시내를 방문하며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고자 하였습니다.

반면에 Stony Brook University의 캠퍼스는 큰 나무들과 사슴, 토끼, 다람쥐 등 다양한 동물들이 자유롭게 다닐 만큼 고즈넉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캠퍼스 규모가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셔틀버스가 수시로 운행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한 캠퍼스 내외로 경찰이 상시 순찰하고 있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는 대학 병원과 호텔 등 다양한 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Stony Brook 지역 자체가 은퇴한 노부부들의 별장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치안 또한 매우 안정적인 편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대도시의 문화적 매력과 여유로운 자연 환경을 동시에 경험하고자 한다면 Stony Brook University를 추천드립니다.





2. 기숙사

기숙사 유형은 복도형(Corridor), 스위트형(Suite), 아파트형(Apartment) 이렇게 있습니다.

1) 복도형
-특징: 긴 복도를 따라서 방들이 쭉 있는 형태
-장점: 주로 신입생들이 많이 배치되는 기숙사라 사람을 많이 마주치고, 커뮤니티 및 기숙사 내 행사도 활발한 편
-단점: 화장실 및 샤워실을 공용으로 사용, 방음이 잘 안 됨, 간단한 요리만 가능(밀플랜 필수)
2) 스위트형
-특징: 방 2~4개+공용 화장실+작은 거실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
-장점: 보통 4~6명만 같이 살다보니 사람들을 마주칠 일이 적고, 조용함
-단점: 함께 쓰는 인원이 적어서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살게 되면 스트레스 받음, 요리 불가능
3) 아파트형
-특징: 방 2~4개+공용 화장실+작은 거실+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
-장점: 공간이 넓어서 쾌적하고, 취사가 가능해서 마음대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음
-단점: 위치가 캠퍼스 외곽에 있어서 캠퍼스 중심과 거리가 좀 있음

보통 교환학생들은 West apartment나 복도형 기숙사에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복도형 기숙사 중 Keller에 배정되었고, 보통 1인실/2인실/3인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다행히 일인실로 배정되었습니다. 재학생들은 Off-campus에서 자취가 가능한데, Stony Brook으로 파견되는 교환학생은 기숙사에 거주해야 하며, 배정되는 기숙사에 따라 Meal Plan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방이 없는 기숙사의 경우 밀플랜 신청이 필수이며,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room type(복도형/스위트형/아파트형)과 occupancy(1인실/2인실/3인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숙사 내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virtual로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배정받은 Keller는 복도형 기숙사로, 층마다 작은 라운지가 있어 방에 있기 답답할 때나 친구들과 과제를 할 때 활용하기 좋았습니다. 한 층에 약 45명이 거주하며,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이 여러 개 마련되어 있어 생각보다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숙사 방을 출입할 때마다 키를 사용해야 하는 점이 번거로웠으며, 키를 방 안에 두고 나올 경우 오피스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기숙사는 화재에 민감하여 작은 연기에도 화재 경보가 울리고, 건물 내 모든 인원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생활하면서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1층에는 간이 공용 주방이 있으나 시설이 제한적이었고, 냉장고가 없어 개인 식재료를 보관하기 어려웠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각 6개씩 있으며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Keller 바로 앞에는 Peet's Coffee가 있어 수업 전 커피를 사가기 편리했으며, 인근 West Side Dining 역시 도보 2분 정도로 매우 가까워 좋았습니다. 또한 기숙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기숙사 방은 아늑하고 깔끔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3. Meal plan

밀플랜은 캠퍼스 내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형별로 'Meal(식사 횟수)+Dining dollars'로 구성됩니다. 캠퍼스 내에 있는 East side dining과 West side dining에서 학생증을 제시하면 식사 횟수가 차감된 후 식사가 가능한 형식이며, dining hall은 뷔페식으로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걸 가지고 와서 먹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증에 충전된 Dining dollar로 캠퍼스 내 Starbucks나 Subway, Jasmine, SAC food court 등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 유형별로 밀플랜 선택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식사 횟수, 다이닝달러, 비용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배정받은 Keller hall과 같이 주방이 없는 기숙사에 배정받은 경우 필수적으로 Unlimited 밀플랜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식사 횟수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하루에 가고 싶은 만큼 dining에 가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Roth meal exchange라고 Roth café 안에 있는 음식점(Subway, pasta, burger 등)을 54번 무료로 먹을 수 있습니다.

Dining은 배정받은 기숙사나 수업듣는 강의실 건물과 가까운 곳으로 가서 먹으면 되고, Starbucks는 도서관, Roth, 병원 이렇게 세 곳에 있습니다. 특히 Jasmine에는 한식 코너가 있는데 한국 이모님들께서 요리를 해 주셔서 꽤 맛있습니다.





5. 학교 수업

저는 어학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정규 수업은 듣지 않았고, 영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영어 수업의 경우 매일 10시~14시로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W 수업은 영어로 이메일 적는 방법부터 긴 글을 읽고 적는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영어로 읽고 쓰는 것에 대해 배우고, L&S 수업은 토론 및 발표 위주의 수업이었습니다. 난이도 측면에서는 정규수업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를 사용해 봄에 있어서 수월하게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구성 인원 역시 25명 내외로 적은 학생들과 수업을 하기 때문에 친구를 깊게 사귀기 쉽고, 교수님과 편안하게 질문 및 소통을 하며 영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빠르게 친해지면 영어로 대화해 볼 기회가 훨씬 많아지니 다양한 친구들과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이벤트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가을 학기가 학년의 시작이기 때문에 봄 학기(1~5월)보다 가을 학기(8월 말~12월)에 더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가을 학기에 파견되면 여름의 청량함,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등 미국에서의 여러 계절을 경험할 수 있고, 시기적으로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 때문에 파티가 많으며,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 학기만 파견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을 학기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요 행사로는 Welcome week, student involvement fair, homecoming, wolfieland, athletics events, Halloween events, Christmas events 등이 있습니다. 'Corq'라는 어플이나 이곳에서 매주 행사를 확인하고, 참여하고 싶은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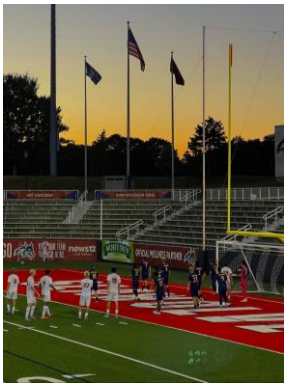



6.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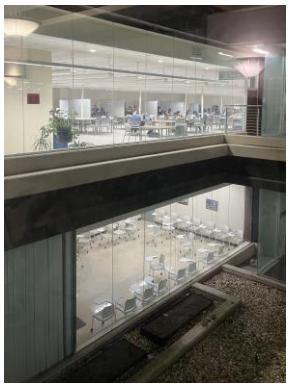
6-1. 학교 고를 때
: 본인이 파견된 후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한 뒤, 그에 맞는 학교 선정 기준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대학교들은 대부분 캠퍼스도 크고 보통 캠퍼스 위주로 동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과 학교 행사 등 캠퍼스 위주의 생활을 할 지, 학교 생활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자주 쌓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본 후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통이 한국만큼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버스, 기차 등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가 있는 친구들과 친해지면 더욱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6-2. 파견 전 준비
: 파견 전에 준비해야 할 게 굉장히 많고, 파견 후에도 꽤 자주 어떠한 정보가 갑자기 필요하다거나 하는 돌발 상황들이 꼭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션을 활용하여 **to-do list**를 작성해서 해야할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갔고, 각종 파일 및 정보들을 한곳에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I-20**나 여권 등은 실물 서류로도 가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마다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영문으로 된 기숙사 주소, 상명대학교 주소, 한국 집 주소는 모두 **Address 1, Address 2, City, State, Zip**으로 구분하여 상단에 적어두어 여행 갈 때나 배송시킬 때 등 필요할 때마다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견 전에 대학 선택 및 지원, 비자 발급, 항공권, 예방접종, 등록비, 기숙사, 짐싸기, 입국심사 준비 등 해야할 게 정말 많은데 모든 걸 다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합니다. 파견 전이 가장 정신없는 기간이라 힘든데 이때만 지나면 사실 그 이후에는 행복한 일들뿐입니다.

6-3. 학교 생활
: 처음으로 다양한 인종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하다보니 낯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적응하고 친구들을 사귀다 보면 어느새 영어도 늘고, 시야도 확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학교에 행사도 많고 지원해 주는 것들도 많으니, 모든 걸 다 즐기고 오시길 바랍니다. 특히 학교에 여러 종목의 스포츠 팀이 있어 학교 내 경기장에서 경기가 많이 열리는데 경기 보는 것도 재밌고 치어리딩 보는 것도 재밌으니 꼭 종목별로 한 번씩은 봐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취미로 드럼을 치기도 했는데 미리 예약하면 **Tabler Community Center**에서 드럼실이나 피아노실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스장도 크고 기구가 많아서 꼭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학교 생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보다는 가까운 카페나 음식점이어도 괜찮으니 이곳저곳 가보는 것이 영어가 더 빠르게 늘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학교 인근 맛집은 **Druthers Coffee**(카페), **Sup Vietnamese Pho**(쌀국수), **Ichi Sushi&Ramen**(라멘), **Sichuan Garden**(중식), **Ssambap**(한식) 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까운 쇼핑할 만한 곳은 **Smith haven plaza**가 있고, 장을 볼 수 있는 곳은 **Trader Joe's, Target, Stop&shop, Costco**가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가볼 만한 곳은 일몰이 정말 예쁜 바다인 **West Meadow Beach**, 가벼운 산책 및 하이킹 하기 좋은 **Avalon Nature Preserve**, 동네가 아기자기 하고 귀여운 **Port Jefferson**이 있습니다.







6-4. 여행

: 저는 시간이 될 때마다 시티를 갔는데 특히 맨해튼, 브루클린은 정말 자주 갔습니다.

(1) Vessel, The High Line, little island, Chelsea market, West village, Soho

(2) Williamsburg, Dumbo, Brooklyn Bridge

(3) Central park, MoMA, Time Square

이런 식으로 묶어서 자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The Met, Whitney Museum, Museum of the City of New York,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등의 미술관 및 박물관이 있고, Summit, Top of the rock 등의 전망대, New York Public Library, Strand Book Store 등의 도서관 및 서점, 뮤지컬, 재즈바, 야구 및 농구 경기 등 할 게 정말 많은 곳이라 매일 가도 질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뉴욕 외에는 뉴저지, 플로리다, 퀘백 등을 다녀왔는데 가을에는 퀘백, 겨울에는 플로리다를 여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7. 느낀 점

해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교환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한국에서 살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과 자극이 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 속에 놓이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고, 한국행 비행기를 몇 차례 미룰 만큼 돌아오기 아쉬웠습니다. 가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지원 후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이소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3학번/ 경제금융학부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Missouri-Kansas C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6년 1월 25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내용

UMKC는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Kansas City, Missouri)에 위치한 대학교입니다. 본교를 선택한 이유는 영어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인 비율이 비교적 낮은 학교를 희망했기 때문이며, 더불어 캔자스시티에서 제공하는 무료 버스와 스트리트카를 통해 다운타운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다만, 이전 파견학생 수가 적고 2025-2학기 파견학생이 저 혼자였기 때문에 정보 교류와 입학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가 향후 UMKC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기숙사

DS-2019 작성 및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입학 허가서를 받고 학교 계정을 생성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숙사 신청입니다. 선택 가능한 기숙사는 Oak Street Hall, Johnson Hall, Hospital Hall 세 곳입니다.

Oak Street Hall은 기숙사 중 신청 마감이 가장 빠른 편이며, 학교 건물들과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고 학식당까지 도보 5분 이내로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Johnson Hall은 학교 건물 및 학식당까지 도보 10~15분 정도 소요되지만, 제가 실제로 거주했던 기숙사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선택지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리모델링되어 시설이 깔끔하고, Oak Street Hall보다 전반적으로 밝은 분위기입니다. 1층 라운지에서는 저녁 시간대에 한국인 및 외국인 친구들과 음식을 나누거나 포켓볼을 치며 교류할 수 있어 다른 기숙사보다 사교 활동에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기숙사 바로 뒤편에 무료 스트리트카 정류장이 있어 다운타운으로 이동하기 매우 편리했습니다.

Hospital Hall은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극도로 꺼리는 경우에만 추천합니다. 학교 셔틀버스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배차 간격이 1시간으로 이동에 불편함이 큽니다. 다만 1인실과 개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호하는 학생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숙사 4인실을 신청했습니다. 입소 초기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소 한 달 전 Roorez 기숙사 포털을 통해 룸메이트 및 스위트메이트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메일을 보내고, 생활 규칙과 휴지·샤워 커튼 등 공용 물품의 비용 분담에 대해 미리 의논했습니다. 이후에도 SNS를 통해 꾸준히 연락을 이어갔고, 실제로 기숙사에서 만났을 때 별도의 적응 기간 없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점에서, 부담되지 않는다면 배정 완료 후 먼저 연락을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연계된 $200 상당의 도난·화재 보험에 가입했으나 개인적으로는 가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함께 교환학생으로 온 타 대학 학생들 대부분이 해당 보험에 가입했지만, 다행히 문제 발생 사례가 없었고 비용 대비 효용이 크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불안하다면 입소 초기 한 달 정도만 단기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업

수강신청은 국제학생 담당 부서인 ISAO를 통해 어드바이저 면담을 예약한 후 진행됩니다. 면담 전 UMKC Academic Catalog 페이지에서 수강 희망 과목을 미리 조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교 학생들이 국제학생보다 먼저 수강신청을 진행하기 때문에 마감된 과목이 있을 수 있으나, 어드바이저를 통해 증원 요청이 가능하며 과목 난이도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Bloch School 소속 경영·경제학 전공 학생의 경우 수강 가능한 과목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교 학점 인정이 필요한 학생은 사전에 수강 가능 과목과 학점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최소 이수학점인 12학점을 이수했습니다. 학교 측에 문의한 결과, 12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수강한 과목은 Cmptr Applcns In Mngmnt, ENT Mindset&Opp Recognition, Business Analytics 1, Engl Support for Intl Students입니다.

ⅰ) Cmptr Applcns In Mngmnt: 엑셀을 다뤄보신 적 있거나 관련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에겐 비교적 쉬운 과목입니다. 출석 비중이 없고 과제 및 시험 위주의 평가 방식으로 자유도가 높은 편이나, 토론 중심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ⅱ) ENT Mindset&Opp Recognition: 토론 중심의 수업으로 3학년 수준의 난이도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가 인터뷰, 창업 관련 보고서 작성 등 대형 과제가 많아 부담은 있으나, 미국식 토론 수업을 경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ⅲ) Business Analytics 1: 엑셀을 활용한 통계 수업으로 난이도가 있으며 과제량이 많아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ⅳ) Engl Support for Intl Students: 국제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수업이자 제가 가장 좋아했던 수업입니다. Michael 교수님께서 지도해주시는 수업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이고, 다 같은 국제학생들이기 때문에 틀리게 대답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영어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준 수업입니다. 에세이 쓰기 과제나 발표/토론 수업이 있지만 큰 부담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한국 교환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으로 Weight Training이 있습니다. 1학점짜리 과목으로 주 2회 오전 10시에 실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어 나름 만족스러웠다고 들었습니다.

3. 식사

교내 학식당은 Student Union에 위치해 있으며,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등 다양한 메뉴와 사이드가 제공됩니다. 미국 음식에 대한 우려와 달리 개인적으로는 너무 잘 맞았습니다.

우선, 밀플랜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총 3종류의 선택지가 존재하는데 가장 저렴한 Block 320 Plan을 추천합니다. Block 320 Plan은 160개의 밀플랜과 $175의 다이닝 달러, 즉 학교 내에서 사용 가능한 달러가 제공되는 선택지입니다. 하루에 세 끼니를 다 챙겨 먹는 편이 아니라면 적절하고, 추가적으로 여행 계획이 있다면 오히려 후반에는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대체적으로 극후반부엔 밀플랜을 부족해하셨는데, 밀플랜 식사를 탭한 후 1시간 전까지 세컨드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유용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실 때 꼭 사이드로 쿠키나 브

라우니도 가져가세요. 몸에 죄 짓는 느낌이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학식당 끝 쪽에는 Chick-fill-A가 위치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밀플랜으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밀플랜으론 치킨 샌드위치와 감자튀김을 먹을 수 있는데 감자튀김이 너무 맛있습니다. 원래 원칙은 일주일에 한 번 밀플랜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횟수 관리를 따로 하진 않았어서 주 5일 칙필레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밀플랜으로 이용가능한 샌드위치 세트 이외에도 소프트콘, 밀크 쉐이크 등 다이닝 달러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식당 이외에도 Royal Hall 1층에 베이글 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Oak Street Hall 지하층에 위치한 Smart Market에서 샌드위치,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밀플랜이나 다이닝 달러로 사먹었습니다. 학식당이 오후 7시에 닫는 것에 비해 Smart Market은 오후 10시 반까지 운영해서 스케쥴이 늦게 끝나거나 야식이 땡길 때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여기선 튜나 샌드위치가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밀플랜의 이용 내역과 잔여 수는 'Get Mobile'이라는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이용가능한 세컨드 밀이 종종 일반 밀로 차감되는 오류가 있었어서 앱을 미리 깔아두시면 이후 오류 확인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교외식당으로는 주변에 Chipotle가 있어서 학교 식사가 물릴 때마다 종종 이용했습니다. 환율이 높을 때라 그렇게 싸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확실히 다른 음식점에 비해 꽤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나쵸칩을 별도로 구매해서 과카몰리를 따로 받아 친구들과 나눠먹는 게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외식을 많이한 편은 아니었지만 경험해본 음식점들 중 추천을 해드리자면, Pizza 51, KIN LIN(볶음밥 맛집), Providence By The Slice의 디트로이트 피자, Dos de oros(퀘사 소스 필수), Nguyen Pho & Grill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4. 주변 인프라

UMKC 주변 인프라는 꽤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캔자스시티 대표 문화시설인 Nelson-Atkins Museum of Art은 무료로 입장 가능한 미술관인데, 규모가 엄청 넓어서 2-3일에 걸쳐서야 전부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의 미술관에서 관람한 것들 보다 캔자스시티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방문했던 이 미술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Union Station은 기차역이자 박물관으로 문화복합공간에 해당합니다. 내부는 매우 넓고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내부에 큰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엄청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Union Staion 옆 Crown Center에서는 이 시기에 아이스링크 장을 운영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어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UMKC에서 무료 Street Car을 타고 West Port 쪽을 가면 바/펍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저녁시간에는 약간 위험할 수 있지만 할로윈 시즌에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로윈에 진심인 나라인만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다를 코스튬과 분장을 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한국의 할로윈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스트리트카 City Market 정류장에서 내려 Farmers Market 방문을 추천합니다. 각종 신선한 야채들과 과일들을 정말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주변에 Chinatown Food Market이 있어 그 안에서 한국 라면들과 떡볶이 밀키트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5. 교내 생활

처음 상명대학교에서 혼자 UMKC로 파견되었던 터라 어느정도 잘 적응할 수 있을지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CampusGroups라는 앱으로 학교에서 주최하는 거의 모든 이벤트들을 다 참여했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2개, 많게는 4개 이상의 이벤트를 하루에 참여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벤트 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스몰 톡을 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이벤트를 함께 진행해 가면서 낯가림이 많이 해소되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 중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Plaza로 같이 놀러 다니고 차를 빌려 타 Worlds of Fun이라는 놀이공원을 가거나 Thanksgiving에 집으

로 초대받아 식사를 하는 등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6. 팁

제가 사소한 걱정이 많은 편이라 미국으로 떠나는 날까지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기본적인 준비물 이외에도 챙기면 좋은 것들과 도착 시 유용한 팁들을 적어보겠습니다.

- 개인 수저(2쌍) 지참: 요리 계획이 있다면 나무 수저 추천
- 다이소 건조기 시트 구매: 미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한국 제품이 향이 더 좋고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챙겨가면 좋음
- 운동복, 러닝화/수영복, 수영모, 수영안경 챙기기: Swinney Center에서는 헬스장과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이용 의사가 있으시다면 챙기는 걸 추천함
-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을 위한 의상 챙기기: Holiday에 진심인 나라인 만큼 꾸밀 옷을 챙기기를 추천함. 할로윈 코스튬을 미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할로윈에 가까워질수록 값이 비싸지고 일회성이기에 사는게 쉽지 않음. 남자의 경우 군복을 챙겨오는 것도 좋은 것 같음
- 영업용 캔따개/와인 따개 챙기기: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식 캔은 주로 밀폐형이라 별도의 캔따개가 있으면 좋음
- 주방용 칼/가위 준비: 한식을 대접해주거나 종종 요리를 해먹어서 있으면 편함
- 이불세트/배게/세제/쓰레기봉투/수건세트/옷걸이 등은 Walmart에서 구매: 질도 좋고 한국에서 챙겨오기에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가서 사는 것을 추천함.
- 전기매트 지참: 여름에도 기숙사 안이 에어컨 때문에 몹시 춥기 때문에 한국에서 챙겨가면 좋음
- 미국 도착 시 UMKC측 Pick Up 서비스 이용: MCI 공항에서 UMKC까지 택시로 이동하게 되면 5-7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옴. 학교 측에 Pick Up 서비스가 있는지 문의하여 이용하면 좋음. 당시 이용하려 했으나 비행기 연착으로 이용하지 못했는데, 그런 경우 ISAO 측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무료 취소 진행해줌.
- Chase 은행 Debit card 개설 후 10회 결제 시 $120 현금 지급 프로모션: 만 25세 미만, 사전 예약 필요함
- Amazone Prime Student 학생 이메일로 가입하기: 6개월 무료배송 가능함.
- Roo Pantry 이용하기: 정말 자주 이용했는데 캔자스시티 내에서 학생들에게 기부한 식료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1주일에 1번 이용가능하며 온라인에서 시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음. 수요일에 물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른 시간은 금방 매진될 수 있음.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윤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5/ 디지털만화영상과
파견시기	2025 학년도 하계방학|동계방학|*2학기*|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 단기언어문화연수(방학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Mississippi
국가	United State of America
보고서 제출일	2025년 12월 26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내용

이번 해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은 단순히 해외에서 한 학기를 보냈다는 의미를 넘어, 본인의 전공과 진로,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부터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출국했으며, 실제로 미국에서 생활하며 그 목표를 구체화하고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 설정했던 목표, 미국에서 실제로 참여하고 경험한 활동들, 해당 경험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하기 전에 설정했던 가장 큰 목표는 전공인 디지털만화영상을 기반으로 미국의 만화 및 비주얼 콘텐츠 시장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 미국 만화 시장, 특히 워너 브라더스의 DC나 MARVEL과 같은 대형 메이저 기업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인디 만화 작가 및 스튜디오까지 직접 체감하며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문적인 이해를 넘어 실제로 미국에서 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미래 진로를 글로벌한 관점에서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을 통해 영어 실력을 원어민에 가깝게 향상시키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수진과의 교류를 통해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미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시작한 이후, 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으며 그 외의 시간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각종 엑티비티, 프로젝트, 워크숍, 강연 등에 꾸준히 참여하며 단순히 수업만 듣는 교환학생이 아니라 현지 학생들과 함께 학교 생활 전반을 경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만화영상 전공뿐만 아니라 패션, 비주얼 디렉팅, 필름 메이킹,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었으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폭넓은 관심사와 그에 상응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진로를 보다 유연하고 확장된 방향으로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과 각종 엑티비티를 통해 영어권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영어 실력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으나, 실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영어로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점차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기가 마무리될 무렵에는 원어민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회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영어로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목표했던 바와 같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수진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학기 종료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환학생 경험이 단기적인 체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인연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기 종료

후에는 뉴욕과 라스베가스를 여행하며 미국의 또 다른 문화와 환경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층 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본인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경험은 이전의 사고방식과 진로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단순히 전공에만 국한되었던 미래 계획을 비주얼 디렉팅, 패션,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라는 직업 형태만을 염두에 두고 있던 기존의 진로 계획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취업을 통해 커리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변화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에서의 생활이 본인의 성향과 잘 맞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의 취업을 통한 장기 체류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변화에 기반하여 앞으로의 진로 계획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에서 장기 체류 비자를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명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주얼 디렉팅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졸업 이전까지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 여러 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교환학생 경험은 본인에게 새로운 방향성과 가능성을 제시해 준 중요한 계기였으며, 앞으로의 진로 선택과 도전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넓은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해 나가고자 합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정지은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 국어교육과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LYON CATHOLIC UNIVERSITY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6년 02월 20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 참여 프로그램명 및 정보 >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정지은입니다. 저는 프랑스 LYON CATHOLIC UNIVERSITY에서 25학년도 2학기 어학 교환학생을 마쳤습니다. 저는 인텐시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매일 4시간씩 프랑스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오후반은 13시부터 17시까지) 인텐시브 프로그램이 아닌 세미 인텐시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경우, 수요일 수업이 없지만 프랑스에서 수업을 듣는 경험이 흔치 않은 경험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인텐시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0월 1일에 구술테스트를 보고 각자의 레벨대로 그룹이 정해졌으며, 개강 OT도 함께 진행 되었습니다. 구술 테스트를 많이 걱정했었는데 난이도에 맞춰 가벼운 자기소개와 몇 가지 추가 질문의 부드러운 분위기로 이어졌고, 수업은 10월 6일 월요일부터 1월 21일까지 총 3개월 반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 교환학생 준비 과정 >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많은 서류들을 언제 다 준비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하는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씩 정리하고 차례대로 해 나가다 보면 출국 날이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프랑스에 오기 전 하면 좋을 목록과 도착해서 해야 할 목록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준비에 모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목	상세	비용
국제학생증 발급	프랑스는 학생들을 위한 미술관 및 박물관에 대한 혜택이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미리 학생증을 발급받아 혜택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LCF 기숙사 신청	MDE(maison des étudiants) st.bernard.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라 시설이 깔끔하고 체계 및 여러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습니다.	보증금 600유로 / 등록금 125유로 / 월세 599유로*4개월
캠퍼스 프랑스 면접 준비	캠퍼스프랑스 이력서 작성(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활동들을 간단히라도 공백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 여권 스캔본, 행정비용납부, 이력서 준비	면접비 333,000원
비자 발급 2차 면접	여권 제출 (반환까지 1~2주 소요) / 비자 발급비는 카드로 가능하지만 현금인 경우에는 1원 단위까지의 정확한 금액을 맞춰가야 합니다.	약 79,000원 (환율에 따라 변동)
아포스티유 발급	주택보조금(CAF) 지원을 위한다면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CAF 서류 준비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자 사본, 여권 사본, OFFI(체류증 파일), 파리 대사관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한 매(전부) 등. 저의 경우는 10월 중순쯤 신청하여 12월이 되어서야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달 90유로 x 4개월) 2026년부터 프랑스의 여러 주택 지원에 변동이 생긴다고 하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신청하시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기숙사 입주 후 곧바로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에 와서까지도 미비서류를 신경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프랑스주불한국대사관 헝데부	저는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음과 동시에 헝데부를 잡았습니다. 만일 기숙사 입주 전 파리를 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때 맞춰 빠르게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보조금을 안 받으실 계획이시라면 해당 내용들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ILCF 온라인테스트	학교 측에서 메일로 테스트 링크를 보내줍니다. 기간 내에 테스트를 보면 됩니다.	
ILCF 등록	개강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등록금에서 처음 납부한 보증금을 제외하고 2,308유로를 납부했습니다.	보증금 370유로 / 등록금 2,308유로
CVEC	학생 및 캠퍼스 관리 분담금입니다. 학교 등록시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105유로

프랑스 계좌 개설 (Revolut)	트래블월렛으로도 대부분의 생활이 해결 가능하지만, 기숙사비와 같은 큰 돈을 납부하고, 외국인 친구들과 돈을 주고받거나, 기숙사 보증금 및 주택보조금을 받을 때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기에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애플페이로 등록해 교통, 자판기 등 어느 곳이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편리했습니다. 다른 나라 여행을 가서도 자동으로 환전해 결제가 되어 네트워크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 조차 편리했습니다. 저는 모인을 통해 레볼루트로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수수료 0원에 환율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계산해 보면 타 트래블카드보다 돈을 더 가져갈 때가 많았더군요…)	
트래블 카드 발급	트래블 월렛, 하나 트래블로그(국제학생증겸용), 신한 쏠트래블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었으나,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레볼루트와 트래블월렛 뿐입니다. 그러나 각 카드의 환율을 비교한 뒤에 가장 환율이 낮은 곳에 돈을 환전할 수 있다는 점과, 여러 곳에 돈을 넣어두어 분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은 좋았습니다.	
해외장기체류보험	저는 마이뱅크 해외장기체류 안심보험으로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약 130,000원
주거보험 가입	출국 전 들어야 하는 주거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저는 ADH 보험을 이용했습니다.	약 46,000원
현지 번호 개통	저는 부이그라는 통신사의 매달 60기가의 8.99 유로 요금제를 이용하였습니다. 여행 전, 로밍 가능 국가를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했으나 스위스에서 왜 데이터가 안 켜지는지 의문을 한참 가진 이후 60유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한국에 도착 전 로밍을 끄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달 8.99유로

SNCF	보통 TGV 떼제베 맥스(매달 80유로를 납부하면 프랑스 내 0원표 기차를 구할 수 있음)를 이용하여 파리나 프랑스 소도시를 많이 여행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를 여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무료인 시간대들이 한정돼 있어서 저는 떼제베 맥스는 따로 끊지 않았습니다. SNCF 어플 내에서 거의 모든 기차표를 30% 할인 가격에 누릴 수 있는 Carte Avantage Jeune 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은근 버스로도 싼 가격에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유로 (한 번만 납부). ** TGV MAX 매달 80유로
비상약 준비	멀미약, 다래끼약, 두통약, 처방받은 감기약, 지사제, 소화제, 인공눈물, 파스 등등의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막상 사용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나라 간의 처장거리 이동을 하는 때가 많아 멀미약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출국 전 종로 온유약국에서 왕창 구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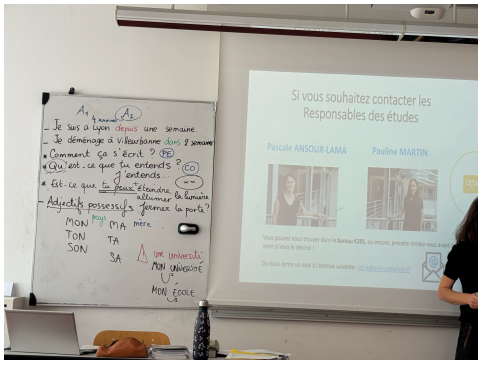
< 전반적 수업 진행 >

저는 초반에 레벨테스트를 통해 오후반을 배정받았습니다. 다만 저는 오전반을 희망하였고, 해당 반의 난이도가 저보다는 한 단계 높다고 판단되어 학교에 메일을 보내고 선생님께 저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다음 주부터 오전반에서 기초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 이동이 쉽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나름의 이유와 상황을 설명드리면 첫 주가 지난 후, 대부분 바꿔주시는 듯합니다. 본인의 난이도에 맞춰 도움이 될 것 같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인텐시브 수업은 월, 화 선생님 한 분 / 수 선생님 한 분 / 목, 금 선생님 한 분 이렇게 총 3분으로 진행됩니다. 초반 수업은 자기소개 및 프린트물로 수업이 이루어지다가 반이 확정된 후에는 알려주신 교재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재는 근처 서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시작하는 수업이 조금은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함께했던 선생님들의 열정과 반 친구들 간의 화합이 좋아서 지각을 하거나 수업을 빠지게 되는 날에는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프랑스어에 일가견이 없던 저였지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프랑스에 오기 전 프랑스어와 영어를 조금 더 공부해 올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시험 관련 >

시험은 수업 중간 마다 최종시험을 위한 수행평가 같은 개념의 시험들(30%)과 1월 중순 쯤 최종 시험 한 번(70%)으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룹은 A1과 A2 수준의 시험을 모두 치뤘기 때문에 각각의 난이도마다 듣기 / 말하기 / 쓰기 / 읽기 시험으로 총 8개의 시험을 치뤘습니다. 대체로 시험은 선생님들께서 수행평가로 수업 중간마다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치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단어를 열심히 공부한다면 분명 무리 없이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기 중간중간 길고 짧은 방학들이 많아서 그 기간을 이용해 여행을 다녔습니다. 선생님들도 여행 다니는 것 때문에 하루 정도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십니다. 게다가 크리스마스 즈음과 방학 전후로는 수업에서 작게 포트락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김밥을 만들었는데, 꽤나 좋은 반응을 얻어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학교 내 매점에서 파는 초코필링이 든 머핀이 정말 맛있습니다. 학생증을 발급받는다면 대부분의 매점 상품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증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개강과 동시에 등록을 마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기숙사 시설 >



기숙사는 리모델링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깨끗하고 체계가 잘 되어있으며 조금은 깐깐하기도 합니다. 우선 층별 시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0층에는 리셉션 및 공부를 하거나 과제를 할 수 있는 코워킹룸 여러 개 마련되어 있으며, 영화를 볼 수 있는 넷플릭스 방(개인 아이디는 필요합니다.)과 기타, 피아노 등이 마련되어 있는 악기실, 자판기가 있는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1층에는 친구가 오거나 인원이 많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큰 주방이 있으며(사용시에는 리셉션에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탁구실과 헬스장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에는 세탁실이 있는데 어플을 통해서 결제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한 번 세탁은 3유로, 건조는 1유로입니다. 오전 및 낮 시간대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플을 통해 머신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내려가 빨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각각의 층에는 앞 쪽과 뒤 쪽으로 나뉘어 주방이 하나씩 있으며 기본적인 접시와 식기류는 2개씩 제공됩니다. 냄비와 도마 등은 0층 재사용 박스에서 구할 수도 있지만, 'Action Lyon-Gerland'이라는 곳에서 정말 싼 가격에 초기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생필품(냄비, 도마, 행주, 옷걸이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방은 냉장고와 책상, 침대, 화장실로 단순하게 되어있는 구조이지만 은근 침대 아래, 책상 밑 등 수납공간이 많아 정말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리셉션에 계신 거의 모든 직원분들이 친절하시지만, 특히나 코피 아저씨와 친해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기숙사 키를 자주 방에 두고 나와 점점 친해지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장난도 치고, 제 방 번호를 기억해 우편도 미리 챙겨주실 정도로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리옹에 학생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식료품을 받을 수 있는 단체(linkee)가 있습니다. 감자, 당근, 고구마, 사과, 오렌지, 대파 등등 정말 다양한 식재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전주 금요일마다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늦게 도착하면 다양한 재료를 못 받을 수도 있기에 20분 ~ 30분 정도는 일찍 방문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길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가져오기를 추천하는 물품들로는

1. 전기장판 (중앙 관리 시스템으로 난방이 작동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챙기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2. 전자레인지용 밥솥 (쌀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파스타와 번갈아 가며 밥을 자주 해먹었습니다. 밥뿐만 아니라 감자, 고구마 등을 찔 때에도 정말 용이하기에 번거롭더라도 챙겨서 퇴실 시 외국인 친구들에게 나눔하거나 재사용 박스에 두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3. 블럭국 (따뜻한 국물이 땡길 때 먹기 좋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챙겼다가 외국인 친구들에게 나눔하고 오기도 했으니 적당량의 블럭국을 다양한 종류로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4. 정전기 청소포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간단히 바닥청소를 하는 데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한 것 중 하나입니다.)
5. 끈 자물쇠 (학기 중 짧게 혹은 길게 여행을 다닐 때 백팩과 토트백을 연결하곤 했습니다.)
6. 소매치기 방지 스트랩 (초반에는 매일 같이 착용하다가 후반쯤에는 그냥 들고 다니긴 했지만, 여행 중에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방심하지 않도록 주의한 덕분에 소매치기 피해 없이 무사히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7. 수건 (집에서 사용하던 헌 수건을 가져와 사용하고, 귀국할 때 버리고 가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새 수건을 챙겨간 탓에 아까워서 도로 가져오게 되었는데, 헌 수건을 챙겨왔다면 수하물 무게 및 부피를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8. 샤워기 필터 (여행을 할 때는 번거로워서 따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기숙사에서는 내내 끼워두고 사용했습니다. 후반에 가니 석회가 걸러진 게 보여서 필터를 챙겨오시길 추천드립니다.)
9. 다이소 방충망 (방이 작기도 하고 날씨가 좋은 날이 많아서 저는 창문을 자주 열어두었습니다. 겨울에는 괜찮지만 9월 ~ 11월 초 정착 시에는 흰 눈송이 같은 식물 씨앗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모기가 많아 방충망이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가위를 챙겨와 신중하게 잘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양면테이프가 부족해서 마스킹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이기도 했습니다…)

< 교환학생을 마치며 >

처음에는 그렇게 낯설기만 하던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도를 보지 않고도 길을 찾아 다닐 수 있고, 어느 빵집의 바게트가 맛있는지, 어느 마트의 무화과잼과 젤리가 더 싼 지 정도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의 인사하는 법과, 주문하는 법만 겨우 알아갔던 제가 선생님들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고, 답은 훌륭하지 못해도 주변 사람들의 질문을 알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연령대의 친구들을 만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더 넓어진 듯합니다.
한국에서 하루에 진로 고민과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수없이 하던 시간들은 다 어디 가고 리옹에서 만큼은 오늘 뭐 먹을지, 어떤 마트를 갈지, 빨래는 언제 돌릴지에 대한 고민들만을 하고 지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때로는 단순함이 주는 행복도 있나 봅니다. 속절없이 흐르는 매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교환학생을 가는 김에 여러 나라를 여행하기를 추천합니다. 우선 저는 12개국 26도시를 돌아다녔더라구요. 어느 나라를 떠날지, 어떤 도시로 갈지 조차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온 교환학생이었지만 감사히도 마음이 맞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계획 세우며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느 나라를 가기 전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알아둘 걸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유튜브라도 한 편, 책 한 권이라도 보았을 때 그 나라의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신기하곤 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매일매일 빠짐없이 조금이라도 일기를 쓰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와서 읽어보면 추억이 떠올라 갤러리 속 사진들과 비교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마그넷을 모으

는 취미를 가졌습니다. 2유로 ~ 4유로 정도의 가격으로 그 나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에 소확행이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냉장고에 쭉 붙여두니 뿌듯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결정한 후 많이 들은 이야기는, '학과랑 큰 관련이 없는데 교환학생은 왜 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저 궁금증에 한 질문인 것을 알지만 그 답을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꼭 납득이 될 만한 멋드러진 대답을 해야 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는 3년 반동안 다양한 알바와 학생회 생활을 하며 세상에는 자신의 속도대로 달려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의 교환학생은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고, 마지막 학기임에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고민의 여지도 없이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마무리 된 현재, 정말 후회없이 만족한다는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조금의 고민이나 후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주저 없이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단 사진은 등하교길의 모습입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유환희
학번(연도만) 및 전공	23학번 글로벌지역학부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 명	어학교환학생 (학기 중)
자매교명	Lyon Catholic University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6년 1월 29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 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 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1) 학교

개강은 10월 초에 시작하여 1월 말에 종강합니다. 프랑스 도착 전, 온라인을 통해 독해와 듣기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되며, 리옹에 도착한 후에는 간단한 말하기 레벨 테스트를 통해 최종 반이 편성됩니다. 개강 후 첫 일주일은 반 조정 기간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현재 반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느껴질 경우 담당 professor에게 요청하여 반 변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professor가 보기에 반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상명대학교를 통해 파견된 학생들은 모두 intensive 과정으로 수강하게 됩니다. 제가 파견되었을 당시에는 월·화·목·금에 정규 수업이 진행되었고, 수요일에는 말하기와 듣기 위주의 비교적 가벼운 수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요일 수업 구성은 학기마다 자주 변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수강했던 intensive 과정의 수요일 수업이 수요일 수업이 포함되지 않은 semi-intensive 과정에 비해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규 수업은 오전반(8시~12시)과 오후반(13시~17시)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오전반을 선호했지만, 오후반으로 편성된 이후에는 아침에 여유롭게 준비하고 학교에 갈 수 있어 오히려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반 레벨은 A1, A1+, A2, A2+, B1, C1, C1+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는 GROUP 4에 배정되었습니다. 프랑스 현지 기준으로는 A2+ 수준, 한국 기준으로는 B1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수업 난이도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말하기와 듣기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 레벨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한 반에는 두 분의 professor가 계시며, 월·화와 목·금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저는 두 분의 수업 방식 차이가 꽤 커서 적응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해 주시고, 말하기나 대화 중 문장 구조가 어색할 경우 자연스럽게 고쳐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70%의 비율로 성적에 반영됩니다. 중간고사는 각 professor마다 4번씩, 총 8번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 방식은 DELF와 유사하게 CO(듣기), CE(독해), PO(말하기), PE(쓰기)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중간고사는 10월 바캉스가

끝난 후인 11월부터 시작되며, professor마다 일정이 달라 저는 약 8주에 걸쳐 시험을 치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말고사는 DELF 형식과 동일하게 1일 차에 독해·듣기·쓰기 시험을 보고, 2일 차에는 안내된 시간에 학교에 방문하여 말하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말고사보다 중간고사가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중간고사는 시험 횟수가 많고 영역별로 자주 평가가 이루어져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수요일 수업은 비교적 가볍게 쉬어 가는 형식의 수업이었습니다. 리옹 시내에 있는 시장을 탐방하거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다 같이 음식을 만들어 와 함께 나눠 먹는 활동도 진행되었습니다. 수요일 수업은 같은 레벨의 반을 2~3개 정도 묶어 진행되며, 정규 수업과는 달리 문화 체험이나 회화 중심의 활동이 많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바캉스 일정에 대해 설명하자면, 10월 말에 약 일주일 조금 넘는 가을 바캉스가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프랑스 국경일이 있어 해당 날짜에 휴강을 하는데, 제가 파견되었을 당시에는 국경일이 화요일이어서 월요일까지 함께 쉬게 되어 주말을 포함해 총 4일을 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바캉스는 12월 말부터 약 2주간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ILCF에서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옹 시내 가이드 투어를 비롯해 근방 소도시 투어, 겨울 크리스마스 행사, 미술관 및 극장 탐방 등 프랑스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프랑스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행사도 있어, 언어 교환과 문화 교류 측면에서도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기숙사

상명대학교를 통해 파견된 학생들은 모두 Saint-Bernard 기숙사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기숙사 위치는 학교까지 도보로 약 10분 정도로 매우 가까워 통학이 편리합니다. 또한 리모델링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져 전반적으로 매우 깨끗한 편입니다.

기숙사는 1인 1실로 배정되며, 각 방마다 개인 화장실이 있어 프라이버시가 잘 보장됩니다. 한 층에는 약 30개의 방이 있고, 주방은 앞쪽과 뒤쪽으로 나뉘어 한 층에 총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에는 개인 사물함이 제공되며, 기본적인 식기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프라이팬이나 냄비는 로비에서 대여할 수 있지만, 저는 혼자 사용하는 것이 편해 따로 구매했습니다. 공용 주방에는 인덕션과 전자레인지가 있어, 전자레인지용 밥을 이용해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고 요리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방 크기는 혼자 사용하기에 적당하며 수납공간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개인 냉장고가 있어 식료품을 각자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담요와 베개가 제공되지만, 저는 리옹 도착 후 이케아에 가서 이불과 간단한 생활용품을 따로 구매했습니다.

기숙사에는 공용 테라스, 세탁실, 공부할 수 있는 공간, 헬스장, 탁구장,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요리할 수 있는 큰 공용 주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관리 직원분도 항상 상주하고 계시며, 저녁 9시쯤에는 기숙사 내부를 순찰하십니다. 기숙사 출입 시에는 야외 철문과 건물 출입문, 총 두 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하며 반드시 기숙사 키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외부인은 밤 10시 이후에는 반드시 퇴실해야 하고, 10시 이후에 기숙사에 출입할 경우에는 상주 관리인의 확인을 받은 뒤 건물 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숙사 키를 제시하면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EMS 택배를 받았는데, 프랑스 택배 시스템이 다소 **ça dépend(경우에 따

라 다르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걱정했지만, 기숙사 로비에서 택배를 직접 수령해 보관해 주셔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기숙사 후기를 들어보면 택배를 개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여 이 점은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기숙사 월세는 한 달에 599유로로, 한화로 약 1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른 기숙사에 비해 다소 비싼 편이지만, UCLY 기숙사이기도 하고 시설이 가장 최신에 가깝고 전반적인 환경이 좋은 점을 고려하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주택 보조금인 CAF를 신청할 수 있는데, 주거지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약 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Saint-Bernard 기숙사의 경우 약 80유로 정도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후기도 제각각이라 개인적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2026년 7월부터 CAF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기숙사비는 매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결제와 로비에서의 현장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9월 26일에 리옹에 도착했기 때문에 9월 거주비를 추가로 지불하고 10월 기숙사 비용과 함께 결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입주하고 싶다면, 기숙사에 미리 메일을 보내 조기 입주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숙사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탁구 대회, crêpes나 프랑스 전통 빵 만들기, 할로윈 장식하기 등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숙사 직원분들과 함께 진행되며, 한국인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직원분들이 “한국 학생들은 무엇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며 입주생들의 취향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숙사 직원분들 모두 친절하고 밝은 분위기이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세히 안내해 주십니다. 프랑스어로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어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3) 생활

리옹은 파리까지 기차로 편도 약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리상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아 주말이나 여유가 있을 때 파리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기에도 괜찮은 위치입니다. 실제로 기차편도 많아 여행 계획을 세우기에도 편리했습니다.

기숙사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Perrache 역이 있는데, 이곳은 버스·트램·지하철·기차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시내 이동은 물론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도 Perrache 역을 자주 이용하게 되어 교통 면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 노선도 잘 정비되어 있어 리옹 시내 어디든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리옹은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만큼, 교통뿐만 아니라 쇼핑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도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부터 소규모 상점, 마트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 도심 곳곳에 공원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여유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았습니다. 큰 도시이면서도 파리보다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라 생활하기에 부담이 덜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리옹은 ‘미식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프랑스 미식 문화가 리옹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음식으로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수준 높은 프랑스 요리를 즐길 수 있고, 전통적인 리옹식 식당부터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까지 선택지가 넓어 외식하는 재미도 컸습니다.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프랑스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리옹 생활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치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소매치기와 같은 문제를 크게 체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때 더 조심해서 다녔고, 리옹에서는 한국에서 생활하듯 비교적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지인들 역시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생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 역시 기본적인 경계심은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했습니다.
버스를 이용해 당일치기 여행을 혼자 다녀오는 경우에는 Perrache 역에 내려 기숙사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밤늦은 시간에 도착했을 때 특별히 위험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혼자 이동하다 보니 주변 분위기 자체가 다소 무섭게 느껴졌던 적은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지만, 혼자 늦은 시간에 이동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유의해서 생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여행
리옹 생활을 마무리하며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점은 리옹에 처음 도착했던 9월 말부터 10월까지 주말마다 소도시 여행을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숙사 근처에 역이 바로 있어 소도시로 이동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소 집순이 성향이라 초반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기가 끝난 후 귀국 전 시간이 남아 그때 여행을 다니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유럽 내 이동이나 도시 간 이동에 자주 이용되던 FlixBus 정류장이 변경되면서 계획했던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아, 리옹에 오시는 분들께는 초반부터 부지런히 여행을 다니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리옹은 교통의 중심지라 이동이 매우 편리해, 편도 약 4시간 정도면 니스, 마르세유, 몽펠리에 등 프랑스 남부 도시로 갈 수 있고, 약 2시간 30분 정도면 스위스나 샤모니, 안시처럼 풍경이 아름다운 도시들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또한 TGV MAX라는 기차 패스를 월 약 70유로 정도로 구독할 수 있는데, 좌석이 남아 있을 경우 무료로 기차표를 예약해 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는 주로 버스를 이용해 이동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바캉스 기간에는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저는 10월 바캉스 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이탈리아의 로마, 밀라노를 방문했고, 11월 국경일에는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12월 겨울 바캉스에는 체코와 독일, 파리를 여행했으며, 학기가 끝난 뒤 귀국까지 시간이 남았을 때는 기차를 타고 네덜란드와 벨기에,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기말시험이 끝난 뒤 주말을 이용해 포르투갈과 스페인 마드리드를 여행했고, 마지막으로 영국도 방문했습니다.
바캉스 기간이 길고, 만약 1월을 꽉 채워 귀국할 예정이라면 학기가 끝난 이후에도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유럽은 저가 항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약 두 달 정도 미리 항공권을 예약한다면 편도 5만 원에서 8만 원 선으로도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 마무리
프랑스어 전공생으로서 프랑스 현지에서 직접 생활하며 공부한 경험은 저에게 매우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비록 프랑스어가 조금씩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할 즈음 귀국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지만, 한국에서만 공부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언어 실력은 확실히 많이 향상되었다고 느낍니다. 특히 교실 수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듣기와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자 여행을 다니며 다양한 상황을 직접 마주해 본 경험은 언어 실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혼자 이동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겼고, ‘일단 부딪쳐 보자’라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견을 통해 프랑스어 학습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 그리고 스스로 한계를 넓혀 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의 진로와 학업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믿으며, 리옹에서의 시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값진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정유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3, 영어교육학과
파견시기	2025 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Towson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6년 1 월 15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저는 한 학기동안 Maryland 주 Baltimore에 있는 Towson University 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볼티모어는 치안이 안좋기로 유명하지만, 안전히 잘 다녀왔습니다. 크게 토슨에서 지내며 보고 느낀 바를 여행, 생활, 수업, 문화, 치안으로 나누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여행/교통>
먼저 제가 가장 고민했던 토슨까지 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첫 장거리 비행이었던지라 익숙하지 않을까 겁나 무조건 직항을 선호했습니다. 유일한 직항은 JFK로 가는 것이었고, 뉴욕도 구경할 겸 JFK 를 선택했습니다. JFK에서 볼티모어로 가는 방법은 크게 버스와 기차가 있습니다.

버스의 장점은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고, 짐을 차 아래칸에 보관하디 편하다는 점입니다. 기차의 장점은 비용은 비싸지만 뉴욕에서 볼티모어까지 걸리는 약 3시간동안 훨씬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처음 JFK에서 볼티모어로 갈 때는 기차, 중간에 여행을 갈 때는 버스를 이용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싸지만 기차를 이용하는게 더 편했습니다. 4시간동안 버스를 타는 것보단 괜찮았습니다. 기차는 주로 맨해튼의 뉴욕 펜 스테이션에서 볼티모어 펜 스테이션까지 Amtrak 을 타고 가면 됩니다. 학생 할인 코드도 있어 검색하고 예매했습니다.

제가 토슨을 선택한 큰 이유 중 하나는 여행하기에 편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사이에 있고, 특히 워싱턴과 가까워 저는 워싱턴으로 많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워싱턴>
워싱턴까지는 Amtrak을 이용할 수도 있고, commuter rail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mtrak은 그 회사에서 운영하고, commuter rail은 볼티모어에서 운영하기에 시간대가 많지는 않지만 훨씬 저렴합니다(약 4달러) 볼티모어 penn에서 워싱턴까지 약 50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주말에 다니기 편리했습니다. 워싱턴에는 국립박물관들이 많아 큰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뉴욕>
저는 뉴욕은 종강 후 여행할 계획이었기에 학기중에는 딱 한번만 방문했습니다. 뮤지컬만 보러 버스를 왕복 8시간을 타고 다녀왔습니다. 학기중에는 비용이 부담되기에 버스를 선택했으나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뉴욕에서 볼티모어로 돌아올 때 사람 하나 없는 차고지에 내려주기에 안전하지 않다 느꼈습니다.
같이 온 한국인 친구들은 다들 종강하고 서부를 여행할 계획이었기에 학기중에 뉴욕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거리기에 여행하기 좋습니다.

<텍사스>

저는 텍사스를 은퇴하신 저희 과 교수님을 뵙기위해 다녀왔습니다. 교수님이 계셨기에 갔지만, 전형적인 텍사스의 분위기를 느끼기엔 충분했습니다. 볼티모어 공항에서 텍사스(포트워스) 까지 3시간 비행기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고 텍사스 분위기를 느끼시고 싶으시다면 추천합니다.

<볼티모어>
종강하고서는 다른 지역들, 필라델피아, 뉴욕, 올랜도를 여행했지만, 종강전에는 아무래도 볼티모어 내부를 많이 여행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볼티모어는 이너하버를 기점으로 그 아래 동네는 갱단이 모여있는 동네들이 많아 이너하버 아래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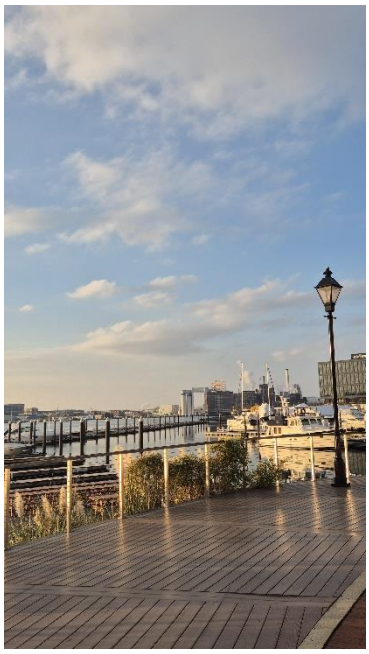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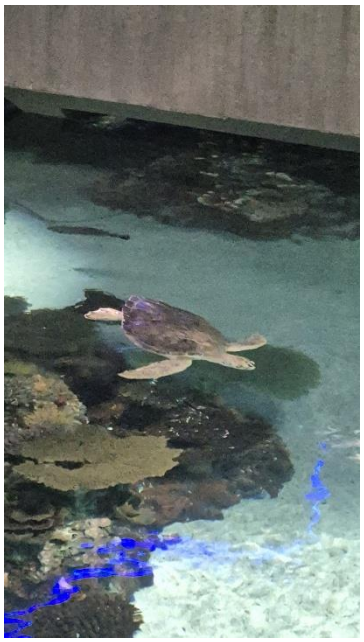
이너하버는 말 그대로 항구인데, 볼티모어의 어떤 동네보다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입니다. 박물관이나 카페, 쇼핑 등 놀거리가 많아 자주 내려가 카페를 방문하고는 했습니다. 이 중 **national aquarium** 은 꽤나 규모가 크고 유명한 아쿠아리움으로,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입장료가 약 **50**달러로 비싼 편입니다. 금요일 **5**시 이후 방문하시면 절반값인 **25**달러로 방문이 가능하고, 가끔 무료 티켓을 나눔하기도 하지만 매우 잡기가 힘듭니다. 볼티모어 저녁시간대는 이너하버더라도 그 장소까지 이동하는데는 위험할 수 있기에 택시를 무조건 이용하시거나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볼티모어는 역사로 유명한 도시로, 미국역사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곳곳에 숨겨진 유적지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너하버의 배들을 잘 살펴보면 진주만의 마지막 배를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 미국 애국가가 만들어진 **port mchenry**도 방문했는데, 역사를 배우기도 좋지만 사람이 많지않아 잔잔한 바닷바람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baltimore museum of art** 등 방문하기에 괜찮은 장소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동시에 안전에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주변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 동부를 여행하기에 최적의 위치이고, 버스와 기차 모두 잘 되어있어서 주말에 여행 다니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교통>

볼티모어 내에서 이동할 때는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이 학교 셔틀과 **baltimore college shuttle**

입니다.

학교 셔틀은 TU ride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의 학생증인 one card만 있으면 이용 가능합니다. 셔틀을 이용하여 주변 Macy's 와 Target 모두 한 번에 갈 수 있어 편리합니다.

Baltimore college shuttle은 penn station으로 갈 때 많이 사용한 볼티모어 내의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셔틀인데, 사이트가 따로 있으니 시간표 확인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onecard만 있으면 무료로 탑승 가능합니다.

또 하나 무료탑승 버스는 loop로, 볼티모어에서 운영하는 버스입니다. Loop 또한 사이트/앱이 따로 있어 노선 확인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onecard만 있으면 탑승가능합니다.

이외 버스는 모두 2달러로, charmpass 앱으로 미리 구매하고 탑승하며 기사님께 보여드리면 됩니다.

<생활>
기숙사+밀플랜으로 크게 문제없었던 부분입니다. 밀플랜은 bronze, silver, gold가 있는데 저는 브론즈를 택했습니다. 브론즈는 Tiget meal 일주일에 2개, dinning dollar 약 50달러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래에 Tiger meal에 대해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저는 일주일 2개의 Tiger meal도 충분했습니다! 어차피 밀플랜 등급 상관없이 학교 학식당(dinning hall)들은 모두 무제한 이용가능하답니다. 이 밀플랜 등급의 차이는 dinning dollar 첫 충전금액과 일주일 당 Tiger meal 사용가능 갯수의 차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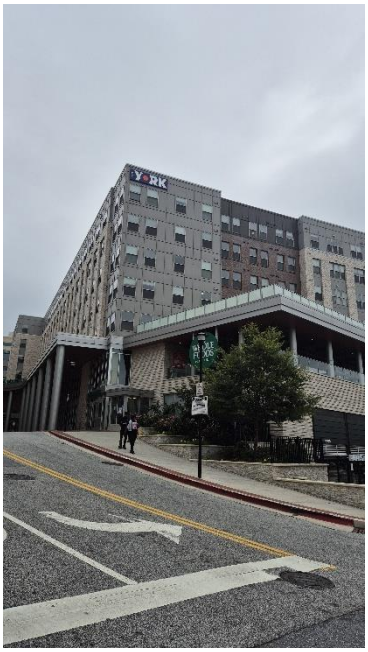
Tiger meal은 학교 내의 여러가지 식당들(체인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입점되어있는 식당들에서 타이거밀을 사용하려면 각 식당의 정해져있는 메뉴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 chik fil a 가 있는데, 여기서는 타이거밀로는 기본 chik fil a sandwich+fountain drink+fries, 혹은 샐러드 두가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외 다른 메뉴를 원하면 따로 결제를 해야합니다. 또한 여기서 dinning dollar를 사용 가능한데, 이는 원카드에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세금이 붙지않아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학교안의 입점된 식당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Dinning hall은 밀플랜 등급 상관없이 무제한 이용 가능합니다.
Dinning hall은 West Village, Newhall, Glenn 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Glenn을 선호합니다. 가장 크고 다양하며 캠퍼스 중앙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Glenn, West Village가 가장 맛있고, 많은 학생들은 Newhall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메뉴가 비교적 적고, 음식들이 비교적 별로였기 때문이죠. Dinning hall에서는 grill, salad, mediterian, vegan, pasta, burger, sandwich 등등 정말 다양한 코너가 존재합니다. 그래도 당분간 먹다보면 한식이 그리울 때가 있는데 다행히도 메릴랜드에는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Ellicot city가 한인 비중이 높은 동네여서 한식 식당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차로는 30분, 대중교통으로는 약 2시간까지도 걸립니다. 저는 운좋게도 친구가 태워다줘서 오랜만에 한식을 먹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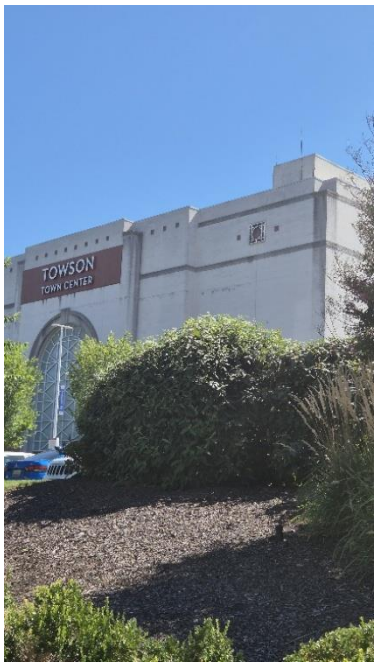
이 외에도 저는 한식이 그립기도 하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 학교 앞의 whole foods market에 자주 가서 장을 봐와 요리를 해먹고는 했습니다. 꽤나 비싼 마트이지만, 모두 유기농, 건강식품들이 많아 저에게는 최적의 마트였습니다. 김치, 고추장, 연두, 삼겹살처럼 의외의 한식 재료들도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토슨대학교는 주변 인프라가 꽤나 괜찮았기에 학교주변에서 웬만한 볼일들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내다보면 아마존을 많이들 사용하실텐데, 미국 학생들은 아마존 프라임을 무료로 1년 사용이 가능하기에 저도 이를 사용해 아마존 프라임을 6개월동안 사용하다 왔습니다. 학생증의 번호와 기타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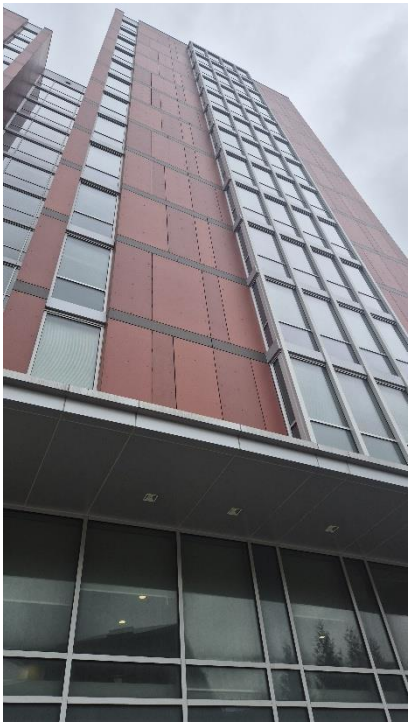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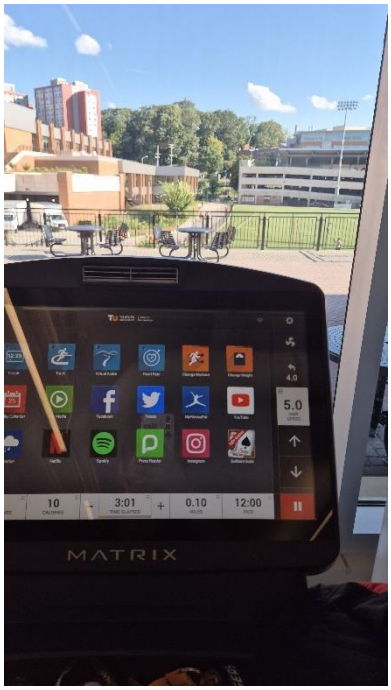
그리고 기숙사 모습입니다. 국제학생들은 모두 Residence Tower에 배정을 받는데, 공용화장실이며 한 유닛에 약 9명(2인실 4개 + 1인실 1개)이 사용합니다. 화장실 등 기타 시설들은 깨끗하여 사용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2층에 세탁실이 존재하고, 세탁기 건조기 각각 한 번당 1.5달러입니다. speedqueen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몰라 초반엔 동전을 모아서 결제하곤 했습니다. 1층에 부엌이 있어 간단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요리도구들은 카운터에서 원카드를 주고 대여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운동시설인데요, 운동을 평소에 좋아한다면 이용할만한 시설들이 매우 많습니다. 수영, 클라이밍, 헬스장도 매우 크고요, 지하에는 복싱, 테니스 등등 시설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 클라이밍, 헬스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야외로 나가는 Towson campus rec이 있는데, 사이트 방문하시면 주기적으로 야외에서 백패킹, 캠핑, 카약 등 소정의 비용을 내고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팔라치안 산맥으로 백패킹을 다녀왔는데, 친구들도 만들고 매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Towson campus rec에서는 매주 정해진 요일에 요가, 필라테스 등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하니 많이 이용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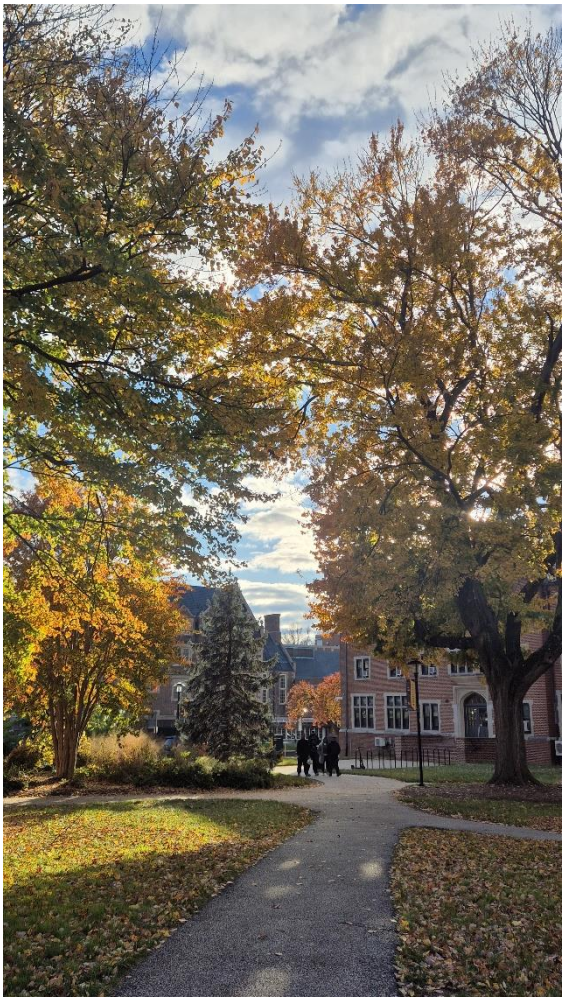


수업에서 보통 에세이 작성 과제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영문과로 갔던지라 모두 에세이 과제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학 에세이 작성이 어려워서 writing center에 예약방문을 해 첨삭을 받거나 교수님게 직접 여쭤봐 점검받기도 했습니다. 영작에 어려움을 겪거나 에세이에 자신이 없으시면 인문대학관에 있는 Writing center 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이벤트들이 열리는데, 첫 주에는 약 일주일동안 웰커밍 주처럼 매일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당시 입학생들도 있어서 더욱 많은 행사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작은 놀이기구들도 오고, 여러 부스들이 열려서 학교도 적응하고 사람들을 만나기에도 좋습니다. 저는 이 주에 kpop dance 동아리에 가입해서(k4t) 공연도 했습니다. 특히 동아리를 들어가니 사람들 만나기가 더 수월했고, 즐거웠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이 매우 많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ISSO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에도 참여해 한국을 알리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한국음식을 해가거나, 국기 계양식을 저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Flag raising day에서 한국인으로 신청해 태극기를 올리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일 것 같습니다. 저와 한국인 친구는 추석에 추석음식을 대접하고, ISA(마찬가지로 국제동아리입니다) friendsgiving 에서도 김밥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교환학생 경험은 잊지 못할 추억이고, 세상을 조금 더 폭넓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영어교육과로서, 영어를 사랑해서 갔던 교환학생인만큼, 최대한 많은 활동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가서 많은 경험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신승연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3 프랑스어권지역학전공
파견시기	2025학년도 하계방학부터 2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LYON CHATOLIC UNIVERSITY
국가	프랑스 FRANCE
보고서 제출일	2026년 1월 21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 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내용
저는 2025-2, 한 학기동안 프랑스 리옹에 있는 ULCY 산하 ILCF(institute de Langue et de Culture Francaises)에 다녔습니다.

비자

비자 준비는 한 번 시작할 때 철저하게 하는 게 좋은데 특히 서류, 사진, 면접예약 등을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관련 정보는 블로그와 교환학생 후기를 참고했습니다. 면접은 캠퍼스 프랑스와 비자과 총 2번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캠퍼스 프랑스 면접 시에 저는 프랑스어 전공이기 때문에 불어로 자기소개와 진로, 교환학생을 가는 이유 등을 설명했습니다. 중간에 꼬리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말하면 통과시켜 주십니다. 비자과 면접은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무난하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비자과 면접 후 여권을 내고 나옵니다. 비자가 나오는데 3주정도 걸리니 그 전에 여행이나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 일을 다 하셔야 합니다.

학교

학교에 음료와 간식 자판기가 있고 카페테리아도 있어 간식이나 밥을 사먹을 수 있었습니다. 앉아서 먹을 자리도 안팎으로 많습니다. 학교 등록 절차를 다 마치면 IZLY라는 카드로 학생 식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딱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증도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주는 QR 코드를 찍고 학교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수업 – 저는 Intensive과정을 들었습니다. 9월 달에 온라인으로 레벨테스트를 보고 10월 1일에 구술시험을 봤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반이 정해졌으며, 어느정도 공부를 하고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한 반에 보통 20명 내외이고 오전반(8시-12시), 오후반(13-17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반 선택은 할 수 없다고 들었지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동안 반을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간 반이 맞지 않아 바꿨습니다. 선생님께 반을 바꾸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이유와 간단한 말하기를 했습니다. 그 후, 어떤 반이 좋냐 하셨고 오전, 오후 어디가 좋은지도 여쭤 보셨습니다. 저는 오후반이 괜찮은 거 같아 계속 오후반을 한다고 했지만 다른 한국인 학생은 오전반을 가고싶다하니 다음주에 오전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반 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월-금에 총 4시간씩 수업을 하며 3시 정도에 쉬는 시간이 20-30분 있었습니다.

Mon Alter Ego 교재로 수업을 했고 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중간, 기말 고사를 DELF으로 보니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에는 베네수엘라, 멕시코, 미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온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수업을 들으며 친해지고 선생님께서 너희 나라는 어때라는 식의 질문을 많이 하셔서 각국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다른 수업과 달리 말하기와 쓰기 위주의 수업을 한다고 되어있었지만 생각보다 다른 점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12월 수업에는 거의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활동을 했습니다. 다른 반과 같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시험 – 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간시험은 11월-12월에 걸쳐서 보고 총 8개가 있었습니다. 듣기, 말하기, 독해, 작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DELF와 같은 형식입니다. 중간시험 성적 반영은 30%였습니다. 책에 나온 주제들을 토대로 문제가 나옵니다. 기말시험은 이틀 동안 나눠서 보며 1월 중순에 봅니다. 첫날에 듣기, 독해, 작문을 보고 둘째날에 말하기를 봅니다. 메일로 시험 시간을 알려주니 메일을 잘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도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 – 학기 중간중간 여러 활동이 있으니 많이 참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프랑스 친구를 만나는 활동, 크리스마스 기념 크레프 만들기, 선물 주고받기, 안시 투어, 리옹 투어 등 여러 활동이 있었습니다.

기숙사

저는 학교에서 걸어서 10분정도 떨어진 Students Houses St. Bernard(Maison Saint Bernard) 1인실에 4개월정도 살았습니다. 10월에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학기 준비를 위해 9월 27일에 도착했습니다. 하루에 40유로를 내면 언제든 미리 거주가 가능했습니다. 월세는 달에 599유로였고 매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고 로비에서 카드결제도 가능했습니다. 방에는 책상, 침대, 의자, 쓰레기통, 옷장, 냉장고 등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방안에 라디에이터가 아닌 히터가 있었는데 온도가 최대 2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방이 작아 온도가 충분했고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주방은 공용 주방이었고 인덕션과 전자레인지, 개인 사물함이 있었습니다.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요리와 설거지를 위해 방에서 나가야 하는 점이 약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기숙사 내에 여러 시설이 있었는데 -1층에는 탁구장, 헬스장, 세탁실, 공용주방(예약하면 사용 가능)이 있었고, 0층에 공부방과 도서실, 음악실, 기도실, TV방, 직원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퇴실 시 완벽한 청소, 10시 이후 대문으로 들어올 경우 리셉션을 통해야 하고 엘리베이터 이용 시간이 있는 등 몇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인 출입을 위해서는 리셉션에 이름과 방 등 사항을 적고 22시 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퇴실 전 퇴실시간을 예약해야 하며 보증금을 받을 계좌도 적으라는 메일이 옵니다. 보면 바로 작성하셔서 보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퇴실 시 청소를 꼼꼼하게 해야 하며 청소나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경우 50유로를 내야 합니다.

기타 (여행 및 생활)

여행 - 학교를 다니는 중에 바캉스가 2번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일주일정도 있고, 12월 말부터 1월초에 2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11월 11일 화요일에 국가지정휴일이 있어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4일 정도 쉴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소도시 당일치기나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많이 안 다닌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른 나라로 여행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환학생은 다른 나라에 여행도 가며 경험을 쌓는 것이라고 많이 말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교통 – 기숙사에서 걸어서 10-15분정도가면 LYON Parrache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차, 버스, 트램을 탈 수 있는데 기차는 거의 Part – Dieu 역에 가서 타야 합니다. Part-Dieu 역은 트램을 타고 가면 됩니다. 2026년 1월 현재부터는 다른 곳에 가서 버스를 타야 해서 돈이 부족해 버스를 타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기차를 타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TCL이라는 교통권이 있는데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할 것 같다면 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컨택트리스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카드 사용은 다음날 사용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검문에 조심하기 위해 카드 찍는 영상을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 자주 갈 생각이거나 여러 곳을 많이 여행할 생각이라면 TGV Max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3개월치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여행 계획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트 – 마트는 Carrefour, Lidl, U Express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학교와 제일 가까운 마트는 U Express입니다. 행사를 자주하니 가기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할인을 해주니 멤버십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Lidl은 기숙사에서 30분정도 걸어가야 하지만 가성비가 좋아서 가기 좋습니다. Confluence와 Westfield에 위치한 Carrefour는 이마트와 비슷한 마트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을 때가면 좋습니다. 규모가 크니 리옹에 처음 와 생필품과 음식을 사러 가면 좋습니다.
한인 마트는 1구에 위치한 ACE GOURMET가 좋습니다. 가격이 다른 마트보다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지만 한국제품도 많고 한국인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마트입니다.

기타

11월 말에서 12월까지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합니다. 학교 바로 앞 광장에서 열리니 학교 가기 전이나 수업 끝난 후에 가면 좋습니다. 크레프, 핫도그, 알리고 감자, 트러플 등 여러 음식과 스노우 볼, 꿀, 잼 등 여러 제품도 파니 기념품 사기에도 좋습니다. 사진찍기도 좋습니다.
리옹에서 가장 큰 축제인 Fete des Lumières를 꼭 구경하길 바랍니다. 리옹 시청사, 리옹 대성당, 푸비에르 노트르담 성당, 떼뜨 도흐 공원 등 여러 곳에서 합니다. 7시-10시에 동시에 시작하니 원하는 곳을 골라서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후기

프랑스어 전공을 선택하고 꼭 해봐야 겠다 한 것이 교환학생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택지가 한 곳 밖에 없어 아쉬웠지만 막상 교환학생을 오니 좋았습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처음 혼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기숙사이다보다 크게 불편하거나 힘들었던 점은 없었습니다. 다양한 친구를 만나며 관계를 이루고 여행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어로만 수업을 하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귀가 트이게 됩니다. 6개월은 짧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단기 어학연수나 개인적으로 프랑스 유학을 또 가고 싶습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윤지민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학번 영어권지역학전공
파견시기	2025학년도 동계방학|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e´ Catholique de Lyon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6 년 2 월 28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안녕하세요.저는 프랑스 리옹에 위치한 Université Catholique de Lyon 대학교의 부속어학원 ilcf 에서 한학기동안 어학교환학생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1.출국 전 준비해야할 것

1-1.지원 절차

먼저 지원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교에 학업계획서,교수 추천서,성적 증명서를 제출하고 난 뒤 캠퍼스 프랑스 서류제출,면접 및 대사관 학생비자 발급까지의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캠퍼스 프랑스와 대사관 비자발급 시에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하는데 특히 대사관 비자 발급은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잡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캠퍼스 프랑스 면접 날짜가 확정이 된 후 되도록이면 빨리 대사관 비자 발급 날짜를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했던 블로그**
캠퍼스프랑스 서류 https://blog.naver.com/tjdus5478/223701379209
대사관 비자 서류 https://blog.naver.com/molly393_/223511567460

해당 과정을 준비하는 동시에 기숙사 보조금인 꺄프(caf)를 받기 위해 필요한 아스포티유를 발급해야했습니다.
종로구청에서 기본증명서,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 후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아스포티유를 발급 받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현금만 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한달에 15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해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했던 블로그**
https://blog.naver.com/cassiopeia__29/223669551619

1-2.그 외 준비해야 할 것

-네이버 해외 로그인 풀기

-한국 문자 수신 정지

-트레블월렛 카드 발급

-주거보험 adh 가입 https://blog.naver.com/kometa-/223934545852

-국제학생증 발급 (일부 미술관,관광지 등 무료로 입장 가능)

-전기장판(겨울에는 난방을 틀어도 춥습니다.)

-전자레인지용 저당 밥솥(쿠팡에서 1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가볍고 작은 사이즈의 밥솥입니다.전자레인지를 사용하여 30분만에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감자나 고구마,라면 등도 10분 내외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비상약(약국,병원비가 정말 비쌉니다.)

-쓰레기 봉투용 비닐봉지(기숙사에서 입주 초반에 제공하는 쓰레기 봉투가 하나뿐이라 버리고 나면 이후에 쓰레기 봉투용 비닐봉지가 꽤나 많이 필요했습니다.)

2.프랑스 도착 후 해야 할 것

2-1.공증번역

도착 후 가장 먼저 파리에 위치한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 후 공증번역을 받았습니다.
방문 전 예약은 필수이며 보통 당일 혹은 그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했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mftjdud01/223584741088

2-2.프랑스 도착 후 3개월 이내 학생비자 체류증(offi)을 활성화 해야합니다.(필수)

***참고했던 블로그**
https://blog.naver.com/parkpaper4/222868957701

2-3.프랑스 번호 개통 및 계좌개설

프랑스에서 번호를 개통하려면 은행계좌가 필요하고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프랑스 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유심이나 이심 구입 후 계좌를 개설하고 후에 부이그 번호를 개통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저의 경우 출국 전 한국에서 미리 오렌지 이심을 구매하여 출국 후 2주정도 사용한 후 부이그 이심을 사용했습니다.
이 후 계좌(레볼루트)를 개설하여 기숙사 월세 및 부이그 통신비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실물카드는 gs 편의점 atm 기계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 트레블월렛 카드를 미리 한국에서 발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했던 블로그**
https://blog.naver.com/lovely_melody/223162246539

2-4.교통카드 및 tgv

리옹에서는 tcl 이라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 저의 경우 tcl 정기 구독권을 사용하지 않고 걸어다녔습니다.
기숙사 위치가 좋아 학교와 지하철역을 도보 10분 거리로 갈 수 있고 마트나 광장,시내,시청,성당,미술관 등 웬만한 곳은 도보 20-30분 내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 대형마트인 꺄르푸를 갈 때만 1회권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습니다.
(지하철역 마다 교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무인 발권기가 있음.(1회권당 2.10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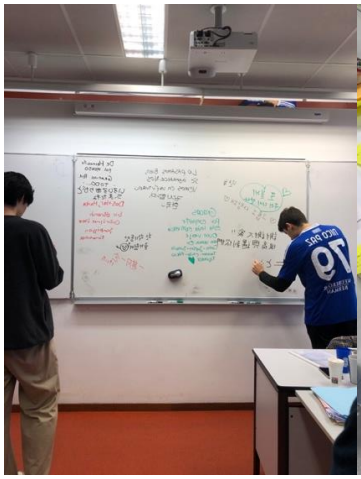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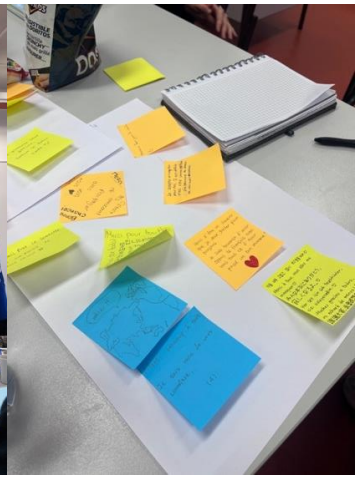
프랑스 교환학생이라면 보통 tgv max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tgv avantage 를 구독하였습니다.
tgv avantage 는 49유로를 내고 1년동안 30% 할인된 가격에 기차를 이용할 수 있고, tgv max 는 한달에 79유로를 지불하고 무료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간,좌석,거리에 따라 사용제한이 있습니다.tgv 자체가 프랑스에서만 이동 가능한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근처 소도시를 여행할 때 많이 사용하였으며 소도시 이동시에도 먼 거리가 아닌이상 버스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참고로 버스 이용시 omio,sncf 어플에서 보다는 flixbus 혹은 blablacarbus 공식 홈페이지에서 교통편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다른 국가 이동시에도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tgv max 보다는 tgv avantage를 추천드립니다.(tgv max의 경우에는 해지수수료(15유로)도 부과됩니다.)

***참고했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oni3030/223630141056
https://blog.naver.com/moontokki1/222742261433

3.수업

3-1.수업내용

저는 intensif 과정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 모두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업은 오전반(8시~12시),오후반(1시~5시)으로 나뉘는데 학기 시작 전 간단한 레벨 테스트 후 시간대는 랜덤으로 반배정이 됩니다.
저는 오전반을 배정 받았는데 확실히 아침수업이라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수업 듣고 돌아와 점심 먹은 후 자유시간을 가지기에 좋았습니다.
수업시간 동안에는 선생님께서 프랑스어로 수업을 합니다.저는 group1 이었기 때문에 숫자를 읽는 법 부터 시작하였고 그 후 4개월 동안은 자기소개,가족소개,마트에서 사용하는 회화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회화들과 단어를 배웠습니다.

3-2.수업 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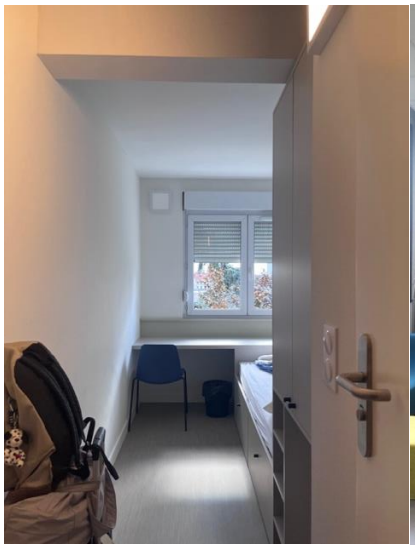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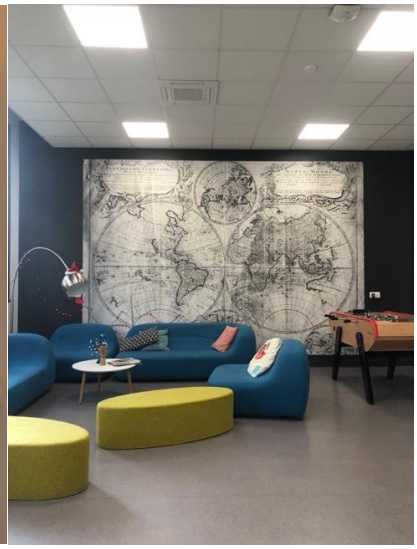
수업 이외에도 학교에서 주체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리옹 시장 구경,오케스트라 공연 관람(강추!!!!!!),영화 관람,안시 여행,트리 꾸미기,크리스마스 마니또 등등.
무료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4.기숙사 시설,가격

제가 머물렀던 bernard 기숙사는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덕분에 매우 청결한 시설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탁구장,뮤직룸,스터디룸,헬스장 등 공용공간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은 1인 1인실에 개별 화장실과 냉장고가 있는 구조라 편리하였습니다.
주방은 층마다 공용주방을 사용하여 개인식기류와 사물함이 제공되었으며 같은 층 친구들과 소통하고 친해질 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팬케이크 만들기, 할로윈 호박 깎기 대회 등 기숙사 내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기준 기숙사 월세 : 599유로**




5.리옹 추천 장소

5-1.마트

U express et drive https://maps.app.goo.gl/sVK1gcUCgkDgDHdi6
: 기숙사와 학교에서 가장 가깝고 저렴했던 마트입니다.
Boursin 마늘 크림 치즈,본마망 캬라멜 푸딩,트로피카나 오렌지 주스,타키스,도리토스 스윗 칠리 페퍼,하리보 스머프젤리,하리보 픽셀젤리는 꼭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Carrefour https://maps.app.goo.gl/tb3X4T9x1FU1wdoz8
: 리옹 쇼핑몰 Confluence 에 위치한 대형마트입니다.
기숙사와는 거리가 좀 있지만 규모가 커 리옹에 위치한 근처 마트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ACE GOURMET, International Store -7/7-Asian Food- LYON
: 리옹에 위치한 한인마트로 불닭볶음면 기준 ace gourmet 보다는 international store 가 더 저렴했습니다.

Action Lyon-Gerland https://maps.app.goo.gl/9QxXqKs2d6PcctQi7
: 리옹에 도착하자마자 필요한 생필품을 사기에 좋은 곳입니다.
기숙사와 거리가 좀 있어 트램을 타고 가야하지만 저렴한 가격대와 다양한 종류의 생필품이 있

어 초기에 필요한 물건들은 액션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참고로 기숙사 주방은 인덕션을 사용하므로 인덕션용 후라이팬과 냄비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2 관광지 및 맛집

Basilique Notre-Dame de Fourvière https://maps.app.goo.gl/VH2qcDew285JufUP8
: 리옹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푸비에르 대성당입니다.
기숙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지하철역 Vieux Lyon - Cathédrale Saint-Jean 에서 2유로를 내고 푸니쿨라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Hôtel-Dieu de Lyon https://maps.app.goo.gl/einKmKNVr4ZCTATE7
: 해 질 때쯤 론강과 Hôtel-Dieu de Lyon 을 바라보며 멍하니 여유롭게 앉아있기 좋은 곳입니다.

Nishiki Ramen https://maps.app.goo.gl/X7SZxqgAZN8H8WMJA
: 가격대가 있지만 정말 맛있었던 리옹의 라멘 맛집입니다.
피크 타임에는 웨이팅이 있을 수 있어 가능하다면 미리 예약하거나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inay's Bakery https://maps.app.goo.gl/JcWwdyToMgfVAuVi7
: 기숙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베이커리입니다.
Roulé aux Pralines 이라는 프랄린 페스츄리를 꼭 드셔보세요.

La Maison Du Goût https://maps.app.goo.gl/4cEvyaoNM2Tb9Ne78
: 개인적으로 프랑스에서 먹었던 바게트중에 가장 맛있었던 베이커리입니다.
가격도 저렴하여 자주 갔던 베이커리중 하나입니다.

학교 카페테리아 머핀
: 학교 0층(1층)에 위치한 카페테리아에서 판매하는 머핀이 있습니다.
학생증이 있으면 할인 받아 먹을 수 있으며 쇼콜라와 초코맛을 무조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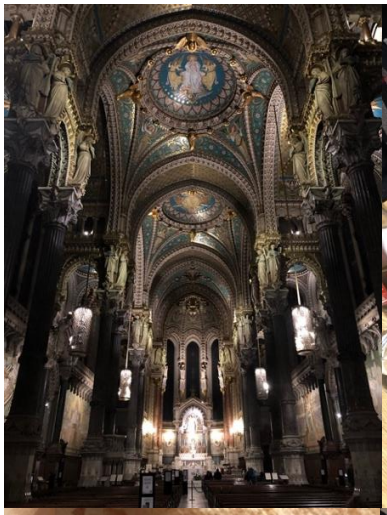
Ta5ty Pizza - Lyon 2 - Confluence https://maps.app.goo.gl/FhAgD6TLRX3zrei68
: 피자 한판을 5유로 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기에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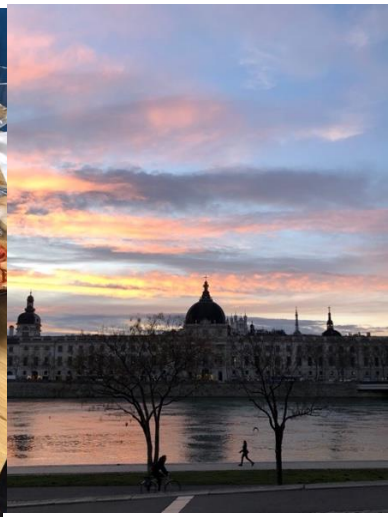
Tacos World https://maps.app.goo.gl/ggzhgD1pA6YN2Jj38
: 양도 많고 저렴한 가격으로 고기 종류 및 소스를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타코(브리또)를 먹을 수 있습니다.

Workshops Marinette https://maps.app.goo.gl/q3XgXDZbLchTPHGLA
Les ateliers de Marinette https://maps.app.goo.gl/naQUKv8b565mu8Ur5
: 빈티지 엽서,피규어,키링,책 등등을 판매하는 빈티지샵 입니다.

Hello Cutie Vintage https://maps.app.goo.gl/iQhK8ZMSnrsRnbRaA
: 질도 좋고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이 자주 입고되는 빈티지샵 입니다.

Puzzle Cafe https://maps.app.goo.gl/UXBeTP8vbjhpUJBc6
: 기숙사에서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한 분위기 좋은 카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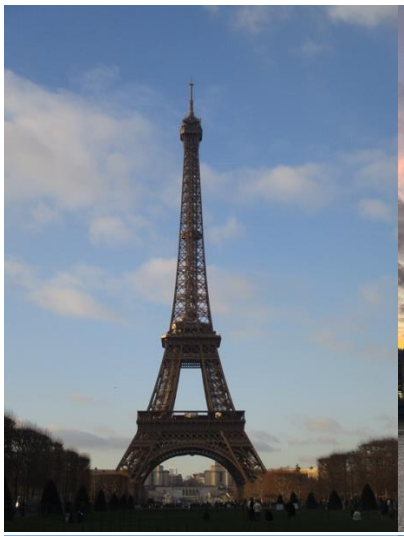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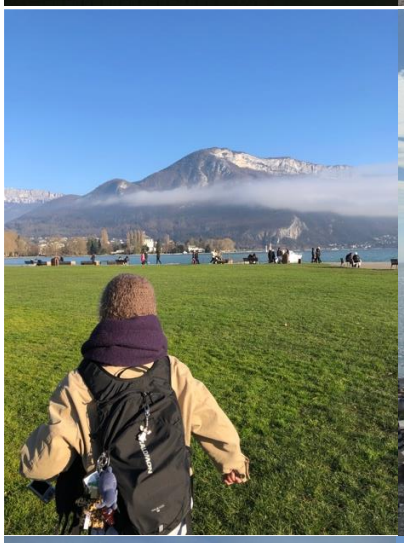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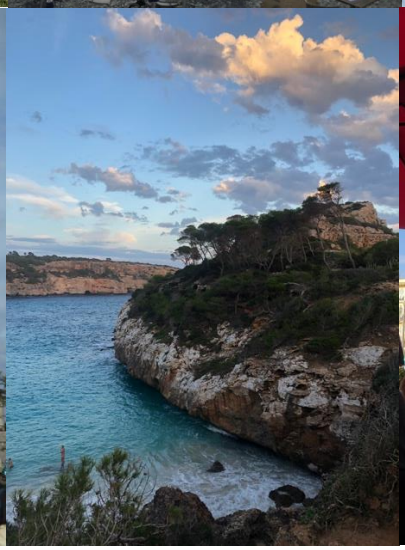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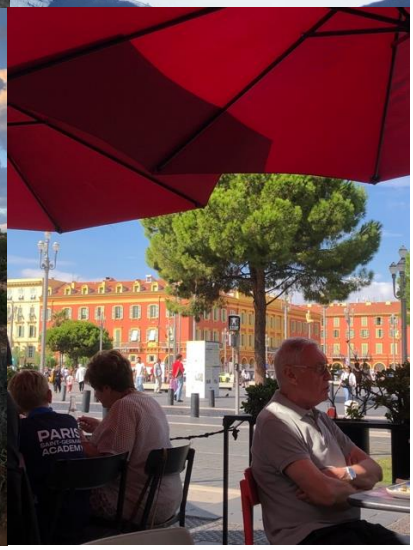
6.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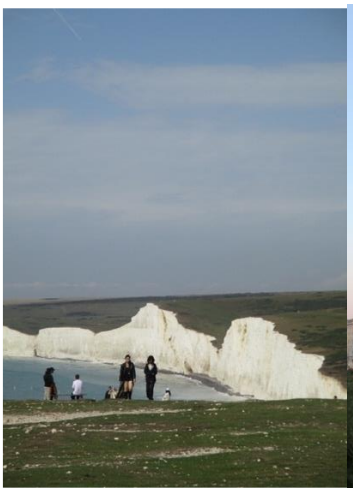
프랑스는 지리적으로 주변 유럽 국가들을 여행 다니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파리의 경우 리옹에서 2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어 리옹은 접근성이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환학생 기간동안 총 12개국과 프랑스 소도시 9곳을 여행 다녔으며 특히 긴 바캉스 기간 덕분에 연말에는 2주정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돌발 상황 속에서 당황하기보다는 '이정도 쯤이야' 라는 자신감을 얻었고 점차 능숙하게 문제를 수습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행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먹고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을 넘어 내가 무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그게 정말 사소한 것 일지라도요.
단순히 여유를 즐기는 여행도 좋지만 자신만의 명확한 목표를 정해 떠나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행의 목적이 뚜렷할 때 그 경험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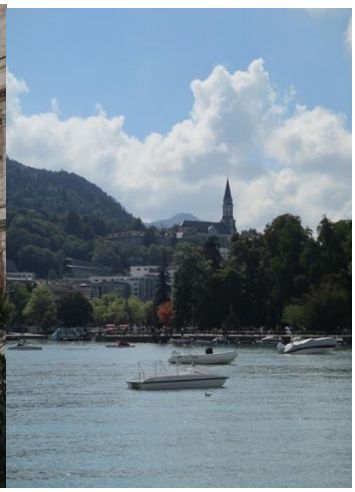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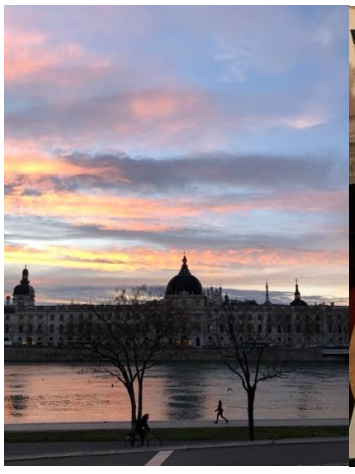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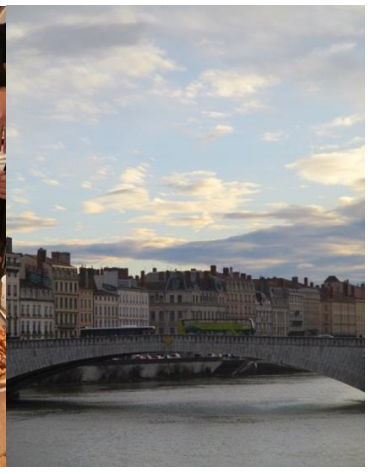




7.마무리

저는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에 특별한 애정이 있었다기 보다는 '해외 경험' 에 초점을 두고 교환학생을 오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를 좋아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고작 5개월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의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뒤따랐습니다.그치만 결국에는 혼자 여행을 떠나고,장을 보고,직접 요리도 하고,내가 좋아하는 공간이 생겨나가는 과정이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곳 사람들은 내가 눈으로 보고 한참을 서성거리던 곳에서 출퇴근을 하고 자전거를 탑니다.또한 제가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상상만 해왔던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친구의 집에 초대 받아 라끌레를 만들어 먹고,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홈파티를 즐기고,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에는 하나가 아닌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이들과 어울리며 이러한 교류의 시간은 저의 시야를 넓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 타인과 소통하며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곳 친구들은 자기표현이 확실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나이에,현실에 구속 받지 않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들을 보며 남들의 시선과 현실에 의식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나다운 선택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경험하고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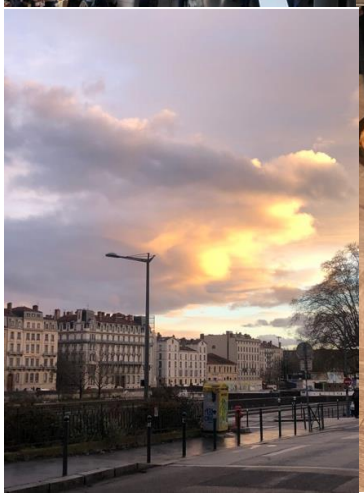





dinh van



UCLy


LE CAFE DU MARCHE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안정빈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학번 문화예술경영전공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LYON CATHOLIC UNIVERSITY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6년 1월 23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1. 기숙사

학교에서 연결해주는 Maison des étudiants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Saint Bernard 기준 월세는 599유로였고, 보증금 600유로, 등록비 125유로 정도가 추가로 들었다. 조금 더 저렴한 옵션의 다른 기숙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다. 방은 조금 좁기는 했지만 홈페이지에 소개된 그대로였고, 수납공간도 꽤 넉넉해서 지내는 데 문제는 없었다. 화장실과 샤워실도 작지만 방 안에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냉장고도 있긴 했지만 냉동실이 없어 조금 아쉽긴 했다.

공용주방이 층마다 두 곳씩 있고, 개인 선반과 그릇, 수저들도 제공해준다. 프라이팬이나 냄비 등 조리도구도 공용시설에서 대여 가능하나 초반에 따로 갖추는 것이 편할 듯하다. 열 명 정도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었지만 식사 시간이 크게 겹치진 않아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은 없었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청소도 해주셔서 쾌적하게 이용이 가능했다.

세탁실은 지하 1층에 있고, 세탁기와 건조기가 세 대씩 갖추어져 있다. 세탁은 1회 3유로, 건조는 1회 1유로로 세탁 어플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결제마다 리뷰(별점)을 남기면 포인트를 주는데, 포인트가 꽤 쌓이면 무료 이용권도 제공하니 꼬박꼬박 리뷰를 남기는 것이 좋다. 저녁 시간대에는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가끔 한두 대가 고장이 나 사용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던 적도 있다.

엘리베이터는 올라갈 때만 이용이 가능하며, 밤 10시 이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주말에는 아예 오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유럽 엘리베이터가 대부분 이런 건지 크기가 매우 작아, 원칙적으로는 한 번에 두 명까지만 탑승이 가능하다.

0층 공용시설에는 리셉션, 휴식공간, 스터디룸, 음악실 등이 있다. 1층부터 5층까지는 방이 있는데 성별 구분은 없었다. 나는 5층을 배정받았는데, 주변에 같은 상명대생이나 한국 학생은 없었다. 비어 있는 방에 무작위로 배정해주는 듯하다. 기숙사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리옹 거주 대학생용 기숙사라 그런지 프랑스인 학생들도 많았다. 방음도 잘 되는 편이라 벽간소음도 딱히 느끼지 못했다. 공용주방 근처 방에 배정받은 친구들은 가끔씩 소음이 들린다고 했던 것 같다.

지내는 내내 불편함은 크게 없었다. 다만 겨울에 지낸다면 방한용품을 넉넉히 챙기는 것이 좋을 듯하다. 히터 최대 온도가 21도이고, 전기장판 사용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이라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는 힘들 듯하다.

2. 학교

리옹 카톨릭 대학교의 어학 교육과정인 ILCF 과정을 들었다. 월화목금에만 4시간씩 수업을 진행하는 세미 인텐시브 과정과, 여기에 수요일 4시간 수업을 더한 인텐시브 과정이 있는데 상명대 학생은 인텐시브 과정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기 시작 전 레벨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 결과에 따라 그룹이 나뉜다. 한 그룹당 10-15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오전반(8-12h)과 오후반(13-17h)이 랜덤으로 배정된다. 일을 하거나 사정이 있는 경우 원하는 시간대의 반으로 배정해주는 듯하다. 그룹 배정 이후에도 본인이 느끼

기에 레벨 조정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거쳐 조정해준다. 나의 경우 한국에서 델프 A2를 취득한 상태였는데, 레벨 테스트 이후 B1 목표 수준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월화/목금으로 두 분의 교수님이 수업을 맡는데, 전체 수업을 프랑스어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벅차긴 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은 덕분에 그 친구들과 교류하며 영어 실력도 함께 늘릴 수 있었던 것 같다.

여러 학생 중 특히 유럽 언어권 친구들은 회화 실력이 좋아, 초반에는 레벨 조정을 고민할 정도로 수준 차이를 느끼기도 했다. 그렇지만 어떤 친구들은 말하기에 능통하면서 작문에는 약하기도 했고, 독해에는 강하지만 청해는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작문/독해/청해/구술 모든 영역을 평균적으로 고려해 레벨을 배정해주는 듯하니 한 영역에서 수준 차이를 느끼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수요일에만 진행하는 인텐시브 수업의 경우 약간은 실망스러웠다. 이전 후기를 읽어보면 델프 준비반이나 발음 수업 등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학기에는 말하기와 작문을 중점적으로 하는 수업으로만 통일되어 이루어졌다. 세미 인텐시브 수업만큼 커리큘럼이 촘촘하지는 않아 쉬어 가는 수업처럼 느껴졌고, 조별 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많이 해이해지기도 했다. 그래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긴 했다.

결론적으로 인텐시브 수업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ILCF 전체 과정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수강 이후 프랑스어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아 뿌듯했다.

3. 생활

모든 것들의 가격이 한국의 두 배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생활비 외에도 교환학생 준비 비용과 기숙사비, 학교 등록비 등 매달 크게 빠져나가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커 부담이 많이 되기도 했다. 그래도 식재료 자체는 저렴한 편이라 외식을 하지 않는다면 식비는 노력하는 만큼 절약이 가능하다. 또한 기숙사가 학교/Perrache 역과 도보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비도 크게 들지 않았다. 기숙사가 리옹의 중심부인 5구에 위치해 있어 도보 3-40분이면 어디로든 접근이 가능해 TCL 카드도 따로 만들지 않았다.

프랑스 교환학생이면 모두 신청한다는 CAF의 경우 11월쯤 신청 후 간절하게 기다리는 중이지만, 1월인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 참고로 이번 학기 CAF를 신청했다는 주변 한국인 중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은 없었다.

리옹에서는 TGV나 플릭스 버스를 이용하면 파리나 근교로 금방 이동이 가능해 여행을 가기에도 좋았다. 내 경우 대부분의 여행에서 플릭스 버스나 블라블라카를 이용했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비용이 훨씬 저렴해 이용하기 좋았다. 또한 교환학생 비자를 소지하거나 학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여러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을 포함한 여러 문화시설이 무료나 할인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곳에 있는 동안 최대한으로 경험해보는 것이 좋다.

리옹에서는 뤼미에르 영화관을 추천한다. 독립예술 영화관 브랜드로 리옹에만 세 군데 위치해있는데, 학생가로 8유로 정도에 감상이 가능하며 최신 영화들도 자주 상영한다. 연극이나 무용 공연을 주로 하는 셀레스틴 극장도 추천한다. 1층석은 조금 비싸지만 3층석 학생가를 이용하면 5-10유로 정도에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다. 겨울학기를 보낸다면 12월 빛의 축제에서도 구경할 것들이 많다. 리옹은 꼭 타지로 나가지 않아도 즐길 거리가 많은 도시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다양한 문화생활을 해볼 수 있다.

오래 전부터 꿈꾸던 교환학생 생활이었다. 오기 전까지는 한 학기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충분히 많은 것을 경험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새로운 언어와 환경에 부딪혀보며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홀로 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길러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 프랑스어를 내뱉은 순간, 몇 시간씩 플릭스 버스를 타며 여행지를 다니던 순간, 따뜻한 조언을 건네주던 외국인 친구들까지 하나하나 선명하게 남는다. 아쉬웠던 부분들까지 모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장재연
학번(연도만) 및 전공	23학번 융합경영학과
파견시기	2025학년도 1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어학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리옹가톨릭대학교(LCU)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6년 2월 2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프랑스 비자 신청>

비자 신청은 미리미리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가지 제가 간과했던 점은 2차 면접 이후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여권을 (대사관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읽으시는 분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그 사이에 일본여행을 다녀오는 바람에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해외여행을 가시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가실거면 그 전에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면접도 너무 떨지 마시고 본인이 프랑스에 왜 가고 싶은지를 명확히 정리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로와 연계해서요! 저는 프랑스를 선택했지만 프랑스어는 한마디도 못해서 면접은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중간 중간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 것은 한국어를 섞어서 말했는데 다행히 잘 넘어가주셨습니다.. 정신없이 하나씩 해치우다보면 출국일이 금방 다가오니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자 신청과 별개로 국제학생증은 꼭 발급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활용을 하지 못했지만 국제학생증 사이트 내에서 항공권을 예매할 시 위탁수화물이 2개 무료더라고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많은 짐들을 챙기실 수 있으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

어학교환학생이다보니 리옹가톨릭대학교의 부설 어학원인 UCLY에서 한 학기동안 프랑스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프랑스 어학연수를 선택한 이후 정말 짧게 학원을 다닌 정도라 왕기초라고 봐도 무방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프랑스에 도착하여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던 날, 전혀 답변을 못 해 20개 레벨 중 1반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시험때는 A2 시험에 평균 이상 점수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프랑스어에 더 많은 열정이 있는 분이시라면 조금 더 높은 반에 가셔도 좋지만, 1반이어도 기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치만 수업 때 Gemini나 ChatGPT가 없으면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선생님들도 정말 열정이 넘치셔서 여러 작문 테스트나 암기 테스트를 수업 중간중간 하라고 내주시는데요. 저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AI를 활용하다보니 나중에 쓰기실력이 많이 안늘었습니다. AI는 필요할 때만 활용하되, 스스로 사고해야 하는 시간에는 부족하더라도 직접 고민해 보고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학기를 마무리했지만 B2까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반이다 보니 조금 더 선생님이나 반 친구들이 화합하는 활동이 많았습니다. 반 친구들과 친해져서 함께 크리스마스휴가 직전에 식당에서 밥도 먹고, 리옹 빛축제도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파티에

초대받아 함께 놀기도 하는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쌓았기에 정말 만족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은데요, 오케스트라 공연은 꼭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료로 정말 환상적인 오케스트라 공연을 들을 수 있어서 만족했었습니다. 그 밖에도 영화감상, 시크릿산타, 폴 보큐즈 시장 치즈시식 같은 활동에 참여했는데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초반에 그런 행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니, 원하는 활동이 있으면 기한에 맞춰서 신청하시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숙사>
저는 saint Bernard 기숙사에서 거주했습니다. 학교까지 10분이면 가고 u express도 매우 가까워서 지리적으로는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환율이 올라 599유로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는데요. 조금 더 알아볼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CROUS 기숙사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프랑스에서 만난 한국분이 470유로? 정도에 주방, 방, 화장실 모두 개인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상명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saint bernard에서 살았기에 다시 선택해도 이 기숙사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층에 왼쪽 오른쪽 각각 1개씩 주방이 있어서 층별로 주방이 2개씩 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의 주방은 저 말고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또 다른 층에는 한국인이 많기도 했습니다. 초반에는 모두 외국인인 점이 부담스러웠지만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여성 친구들은 K-POP에 대해 잘 아는 경우도 많았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들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친해진 친구들도 생겼고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도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이왕 프랑스에 나간 거 조금만 더 용기내서 말을 걸고 스몰토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말주변이 없는 편이었지만, 자꾸 대화를 시도하다 보니 실력이 늘더라고요! 프랑스인들에게는 말을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헝가리, 미국, 브라질 그리고 호주 등등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기숙사에 살고 있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행>
저는 프랑스 내로는 파리 4번, 마르세유, 아비뇽, 안시, 샤모니 를 다녀왔고 다른 나라로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를 다녀왔습니다! 많이 다녔다고 하면 다녔지만 조금 더 부지런히 다닐걸 그랬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Omio 앱을 이용하면 어떤 경로가 최적인지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flix bus는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BlaBlaCar Bus도 괜찮지만, 당일에 버스가 취소된 적이 있어 가급적 FlixBus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blablacar bus에는 카풀제도가 있습니다. 두 번 정도 이용해 보았는데 다들 친절하셨고, 가격이 더 저렴할 때도 있어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 'Super driver' 인증이 되어있는 분만 쓰시길 권고드립니다.

<준비물>
평소 한국에서 요리를 자주 하지 않으셨다면, 블록국이나 고추장을 너무 많이 챙겨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국을 자주 먹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0개가 넘는 블럭국을 챙겨가서 마지막에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왔습니다. 가게 되면 마트 물가가 정말 저렴하고 결국 프랑스 마트에서 늘 장을 보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한국 조리음식들은 챙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냄비나 드라이기 같은 부피가 크고 꼭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가시게 될 텐데요, 'ACTION'이라는 가게를 추천합니다. 기숙사에서 트램을 타고 이동해야하긴 하지만 action이 한국의 다이소 같은 느낌으로 정말 저렴하게 물건을 팝니다. 초반에 저도 거기서 냄비밥을 해먹기 위한 냄비, 냄비뚜껑, 프라이팬, 조리기구, 수건을 구매했습니다. 한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1인용

이라 생각해서 제일 작은 프라이팬을 골랐는데, 가급적이면 큰 프라이팬을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기숙사에 사는 다른 여러나라 친구들이 큰 프라이팬으로 한번에 대용량 파스타를 만들어 소분해 나누어 먹는 모습이 매우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제일 작은 프라이팬으로 구매해 그때 그때 해먹어야 했습니다.

렌즈를 착용하신다면 리뉴(세척액)나 여분 렌즈는 반드시 챙겨가시길 권장합니다. 저는 챙겨가지 못해 현지 약국에서 구매했는데, 한국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에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는 라로슈포제나 아벤느가 저렴하고 좋다고 들었지만, 생각만큼 저렴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화장품이 최고입니다.

그 밖에도 어댑터형 충전기(사용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만일을 대비한 비상용 아이템), 트래블월렛 카드 (친구들과 비용을 나누어 결제하기 편리함), 동전지갑, 도난방지줄, 보조배터리, 손톱깎이, 압박스타킹, 샤워용품 소분용기, 펜, 전기장판, 목도리, 장갑, 우산, 이어폰, 젓가락(강력 추천!!!), 반창고, 상비약(감기약 같은 경우는 근처 병원에서 2주 분량 정도 넉넉히 받아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이소 여행용 휴지, 물티슈, 머리끈, 캐리어 무게 측정기(저는 친구에게 빌려썼는데, 귀국할 때 아주 유용했습니다. 위탁 수화물 추가 요금을 방지하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텀블러, 욕실 실내화, 공용공간 신고 다닐 실내화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주방용 가위랑 집게도 집에서 챙겨갔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자취를 해 본 적도 없고 집 밖에 나와서 살아 본 경험이 프랑스가 처음이었는데요! 프랑스 마트 안에서는 종종 인터넷이 터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점원에게 문의하면 프랑스어로만 답변을 받아 당황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때 좌절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었는데 그 잠깐의 시기가 지나고 나니 인생에 있을 최고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준비하다 보면 막막함이 밀려오지만 프랑스에 도착하면 모두 나와 같이 혼자 준비해서 프랑스에 있는 한국 친구들이 많습니다. 분명 잘 맞는 친구들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원래는 미국 교환학생을 희망했으나 토플 문제로 인해 프랑스로 오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프랑스를 선택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유럽권은 모두 붙어 있어 여행 다니기가 편리하고 모두들 정말 친절합니다. 다들 기회가 된다면 꼭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이 글을 읽고 가시는 분들 모두 더 많은 즐거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